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육신의 아버지를 허락해주시고 가정을 이끌어주시게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녀를 교육하며 하나님의 일군으로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아들이 네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의 금사슬이니라
잠언 1장 8-9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7년 6월 10일 (토) 제 1637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신호등 돼주신 아버지가 그림다!

‘2017 아버지날 맞아 아버지의 의미 되새기고 아버지 상 정립위한 단상

아버지들이 진정으로 아버지가 되면 세상이 달라진다. 세상 도처의 아버지들이 제 목소리를 되찾고, 힘을 발휘하고, 진정한 남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는 기쁨을 회복할 때, 가정에서부터 시작돼 교회 공동체는 그 본질부터 달라질 수 있다.

사실 가정에서의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의 모습을 대변하기도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아버지는 아담처럼 하나님을 잊은 채 침묵만 지키고 있다. 어쩌면 그는 외롭고, 높고, 쓸쓸하기만 하다. 점점 밀려나가는 가부장적 자리에서 아버지는 말없는 아버지, 힘없는

아버지, 때리는 아버지, 이혼한 아버지, 죽은 아버지로 기억되고 있는 서글픈 현실에서, 우리는 매년 아버지날을 맞이한다. 현대 사회에서 아버지는 왜소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는 살아 있다.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영적, 정신적 영향을 준 존재로서의 아버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바른 아버지가 바른 자식을 낳는다. 아버지날을 맞아 아버지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하늘 아버지를 닮은 아버지 상을 정립하기 위한 생각들을 정리한다.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한결 같이 자식을 사랑하고,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 한다. 하지만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마디로 소통의 부재다. 아버지들은 그저 고지식하게 열심히 일을 해서 가족들을 부양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아버지로서 최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바쁜 이민 생활, 영어가 더 편할 수도 있는 아이들과의 관계는 상황을 악화시킨다.

이민자로서 살기 위해 바쁘고, 그로 인해 가족과의 간극은 커졌다. 나이 들어 돌아올 때는 너무 늦었다. 소처럼 일만했던 아버지의 노년은 가족들에게는 그냥 불편한 아저씨가 되는 사례가 너무 많아진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이것은 아버지의 책임이다. 가족을 위해 평생 희생했다는 결론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 가족 구성원으로 스스로의 자리를 찾지 못했다. 지금까지도 돌아보아야 한다. 더 많은 시간을 가족들과 공유해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진다. 권위는 남보다 유대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아버지로서 산다는 것. 어쩌면 더 힘든 일일 수도 있다.

미국에서 아버지날은 6월 세 번째 일요일에 지키는데, 워싱턴 주에서부터 시작됐다. 첫 아버지날은 스포츠 행사에 의해 제정됐다. 어머니날이 지켜진지 2년 후인 1910년 5월, 교회에서 어머니날 설교를 들던 그녀는 홀로 6남매를 키우며 고생하신 아버지를 생각했다. 그녀는 목사님에게 아버지의 생일인 6월 5일을 아버지 날로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목사님은 시일이 너무 촉박하다는 이유로 19일을 아버지날로 정했다. 전국적으로 아버지날에 대한 지지가



이 시대의 아버지는 돈만 벌어드주는 아버지가 아닌 영적 정신적 아버지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확산됐으나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연방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결국 62년 후인 1972년에야 닉슨 대통령에 의해 공식적으로 제정됐다.

아버지 자신이 게으르고, 정직하지 않고, 순결하지 않거나 우유부단하면서 어떻게 자녀가 잘하기를 바랄 수 있을까. 그러나 아내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가족을 결단과 헌신으로 이끄는 아버지는 아이에게 커다란 선물이다. 아버지가 좋은 모범을 보이면 아이는 안정된 정서를 지닌 아이로 자란다. 출생 후 첫 5년은 아이의 인격이 활발히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버지는 좋은 모범을 보여야 한다.

아주 오래전부터 남자는 가족을 이끌라는 임무를 지녔다. 사실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책임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오늘날 수많은 남자는 이런 임무를 게을리 할 뿐만 아니라 종종 아예 자리를 비워 버린다.

특히 크리스천으로서 남자는 자녀뿐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아이들의 아버지가 돼야 한다. 자녀가 없는 남자도 뛰어난 부성이라는 자질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부성은 모든 남자에게 주어진 책임이므로 진정한 남자라면 어린이 모두에게 아버지가 돼줄 것이다.

(3면으로 계속)

그늘진 곳에 복음의 빛 비춘다!

CT, 인신/성 매매로 어두운 캄보디아에서 희망의 씨앗 심는 크리스천들과 NGO 활약상 보도(상)

강력했던 힌두교 왕국시대와 '킬링필드' 대학살 그리고 기나긴 빈곤의 시기라는 특별한 역사를 간직한 캄보디아는 치유와 사랑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땅이다.

1975년, 크메르 루주 공산주의 혁명가들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캄보디아의 도시들은 황폐해졌고, 지식인과 종교인들에 대한 대학살(인구의 20%에 이르는)로 17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생존자들은 국경 난민캠프로 도망가야 했다.

이런 끔찍한 고통을 겪은 캄보디아 사람들은 또 다시 자신들이 믿어온 불교식 '업보'의 무게에 눌러 가난과 문맹, 높은 부패지수 등의 악조건들에 묶여 버렸다.

그러나 1993년 총선 이후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고 많은 기독교 NGO들과 선교사들 그리고 태국의 국경지대에 있던 난민 캠프에서 성경공부를 한 교회 리더들과 크리스천들이 돌아오면서 캄보디아에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다.

많은 사역들 중에서도 크리스천들과 NGO들은 인신매매로 이어지는 성 매매 현장이라는 그늘진 곳에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있다. 이러한 사역들에 동참하며 지켜본 캄보디아 교회지도자, 사회복지사, 정부 관리, 성매매 희생자들의 이야기는 최근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혀 다른 변화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변화의 주역은 거의가 크리스천들이다.

크리스천리티투데이(CT)는 최근 커버스토리로 프놈펜 현지에서 캄보디아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희망의 씨앗이 어떻게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도했다(Cambodia's Child Sex Industry Is Dwindling-And They Have Christians to Thank From rescues to legal reform, a faithful minority changed the country's criminal landscape.) 본지는 이를 3회에 걸쳐 연재한다.

1975년 '킬링필드' 후 기독교인/NGO들 변화의 주역돼 2015년 성매매 종사 미성년소녀 숫자 4분의 1로 줄어

섹 사로은(Sek Saroeun)이 성경을 처음 읽은 곳은 어린 소녀들의 불법 성매매가 거래되는 프놈펜의 한 술집이었다. 햄버거는 1달러, 생맥주는 1달러 50센트, 돈을 더 지불하면 잠자리 대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

그 술집에서 DJ로 일하던 불교도 법학생 섹은 기독교 인권단체인 국제정신교회(IJM)의 비밀 정보원이 됐다. 스피커에서 마이클 잭슨의 음악이 울려대는 룸에서 그는 수상한 사람이 없지는 않았다. 이를 계기로 기독교에 호기심을 갖게 된 그는 DJ 부스 안에서 빌린 성경책을 읽다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았다.

섹은 IJM이 캄보디아에서 성매매 실태 조사를 처음 시작할 때 그 일에 참



여했다. 캄보디아는 크메르 루주의 악명 높은 대학살과 불안한 국내 정세로 값싸고 추한 섹스 관광의 온상이 됐다. (3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준학사 / 학사 석사 박사 수료증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박사(DCM-온캠퍼스)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워싱턴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	---	--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시론 은희곤 목사 2면	 소망 칼럼 박재호 목사 3면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웅 목사 7면	 청교도신앙 이윤석 목사 8면	 살롬의 교육학 이희갑 목사 14면
---	---	---	--	---




Grace Mission University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ATS 정회원 및 미주한인 신학교 최초 D.Miss.(선교학 박사) 과정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여러분을 초대 합니다

<p>학위과정</p> <p>선교학 박사 (D.Miss) 목회학 석사 (M.Div) 기독교 교육학 석사(MA CE) 선교학 석사 (MA ICS) 신학사 (BA)</p> <p>특혜</p> <p>한인신학교 최대규모의 도서관 저렴한 교육비, 다양한 학교 장학금 수여 English Track LA Extension Class I-20 발급 연방정부 학비보조 (Federal Student Aid) 온라인 통신으로 전과정 제공 HD 시스템 온라인 강의 한인신학교 최초 "Live" 강의</p>	<p>2017년 졸업식 및 학위 수여 예배</p> <p>일시: 2017년 6월 5일(월) 오후 7:00 장소: 은혜 한인교회 비전센터 본당</p> <table border="1"> <tr> <td>강의 일정 (자세한 일정은 학교 홈페이지 참조)</td> <td>D.Miss</td> <td>최근의 세계 선교전략 통일 선교신학 논문작성법</td> </tr> <tr> <td>여름특강</td> <td></td> <td>· Career & ministry development seminar (진로 및 사역개발 세미나) · Contemporary Trends in World Mission (세계선교동향) / 헬라이어</td> </tr> <tr> <td>LA Extension 공개 여름 특강</td> <td></td> <td>· Counseling & Education for youth at risk 위기 청소년 상담과 교육 (7월5,12일) · Missional Church선교적 교회 (7월19,26일) · Church Communication 교회 커뮤니케이션 (8월2,9일)</td> </tr> </table>	강의 일정 (자세한 일정은 학교 홈페이지 참조)	D.Miss	최근의 세계 선교전략 통일 선교신학 논문작성법	여름특강		· Career & ministry development seminar (진로 및 사역개발 세미나) · Contemporary Trends in World Mission (세계선교동향) / 헬라이어	LA Extension 공개 여름 특강		· Counseling & Education for youth at risk 위기 청소년 상담과 교육 (7월5,12일) · Missional Church선교적 교회 (7월19,26일) · Church Communication 교회 커뮤니케이션 (8월2,9일)	<p>ABHE 정회원</p> <p>TRACS 정회원</p> <p>ATS 정회원</p>
강의 일정 (자세한 일정은 학교 홈페이지 참조)	D.Miss	최근의 세계 선교전략 통일 선교신학 논문작성법									
여름특강		· Career & ministry development seminar (진로 및 사역개발 세미나) · Contemporary Trends in World Mission (세계선교동향) / 헬라이어									
LA Extension 공개 여름 특강		· Counseling & Education for youth at risk 위기 청소년 상담과 교육 (7월5,12일) · Missional Church선교적 교회 (7월19,26일) · Church Communication 교회 커뮤니케이션 (8월2,9일)									

2017년도 가을학기 등록 시작: 2017년 7월 1일
가을학기 수업시작: 2017년 8월 28일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 714-525-0088(대표), 515-5885(고객지원)
Email: admissions@gm.edu 웹사이트: www.gm.edu





시론

“돼지 잡는 날”



은희곤 목사 (참사랑교회)

미국 캔자스 주의 작은 마을에 채프먼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월버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탄넬이라는 분이 가난한 월버에게 용돈을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월버는 탄넬 아저씨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냅니다. “탄넬 아저씨! 그동안 저에게 용돈을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마을에는 한센병 환자들이 많아요. 저는 아저씨께 준 3달러로 새끼돼지를 사서 키우고 싶어요. 이 돼지를 팔아 한센병 환자 가족들을 도와야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아저씨처럼 누군가를 돕고 싶어요.” 이후 월버는 돼지 새끼를 사서 열심히 키웠고, 마을의 또래 아이들도 덩달아 돼지를 키웠습니다. 월버의 새끼 돼지는 살이 포동포동 울랐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돼지를 팔아 한센병 환자 가족을 도왔습니다.

이 사실이 지역신문에 소개되었고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전해져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년 월버의 아름다운 뜻에 참여하고자, 돼지는 아니지만 돼지 모양의 저금통을 만들어 이웃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돼지저금통’이 시작된 유래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올해 창립 45주년을 맞아 “에베에셀의 감사, 임마누엘의 찬양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순종 예배”를 중심으로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이때 돼지 200마리를 잡을 겁니다”라고 말하자, “돼지 200마리 잡아 잔치를 하실려나?”는 생각에 눈이 동그해집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돼지저금통을 나눠주었습니다. 이날 다 가지고 와서 모자라는 캠페인이 “돼지 잡는 날”입니다. 성도 중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요즘 크레딧 카드들을 많이 써서 동전이 잘 안생겨요. 그때까지 돼지저금통이 채워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권합니다. “돼지가 굶으면 죽어요. 동전을 못먹으면 지폐라도 먹어야지요. 토실토실한 돼지를 잡아야 잔치 돼지됩니다.” 하여튼 돼지 저금통이 200개 나갔으니 200마리 돼지를 잡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일명 “돼지 잡는 날”입니다.

“영생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작은 기회에 참여하는 날”입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그러나 그날과 그때가 가까워 오면 성경은 2가지 징조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주론적인 징조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등등(마24장)입니다. 두 번째는 세태적 징조입니다. 자기와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여, 사나우며, 조급하며, 쾌락을 사랑하고 등등(딤후3:1-5)입니다. 이런 2가지 징조에 비취볼 때 현재 우리는 마지막에서도 마지막 즉 말세지말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든지, 아니면 그 이전에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지만, 우리를 모두는 예외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영벌’과 ‘영생’이 나뉘집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을 통하여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 3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때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3가지 비유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10처녀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로, 달란트의 비유는 착하고 충성된 종과 게으르고 악한 종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는 양과 염소로 각기 나뉘집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모두에게 열려져 있지만 아무나 가지는 못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3가지 비유를 통해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대답하십니다. “인생이란 천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요 기간”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항상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여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 뜻을 준비를 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과 같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잘 섬기고,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 즉 ‘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25:40), ‘작은 소자’ 하나라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돌보고 나누며 살 때,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돌보며, 나누며 섬기는 일은 ‘천국과 영생을 준비하는 신앙’이요 인생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마25:46) 우리는 매일의 일상을 ‘천국과 영생을 준비하라고 주신 마지막 기회요 기간인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돼지 잡는 일이 아주 간단하지만 그 돼지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고 나눔 때 사용되어진다면, 우리는 천국과 영생을 준비하는 인생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주자적근목자흑(近朱者赤近墨者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붉은색을 가까이하는 사람은 붉게 물들고, 먹색을 가까이하는 사람은 검게 물든다는 뜻입니다. 착한 사람과 사귀면 착해지고, 악한 사람과 사귀면 악해짐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 이웃을 향한 따뜻한 시선으로 따뜻한 세상,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는 동역자들입니다. “한 개의 촛불로 많은 촛불에 불을 붙여도 처음의 촛불의 빛은 약해지지 않는다”(탈무드).

pastor.eun@gmail.com

‘저항불가’ ...스마트폰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NYT, 사회심리학자 아담 알터와 인터뷰 통해 디지털 기기중독 현실고발

스마트폰 알람으로 아침잠에서 깨고, 누운 채로 스마트폰으로 오늘 날씨를 확인한다. 출근하는 동안 스마트폰으로 노래를 들으며 밤사이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새로운 글을 확인하고 인터넷 기사를 읽는다. 스마트폰 메신저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궁금한 것이 있을 땐 바로 검색을 하고,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웹툰을 보거나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을 본다. 스마트폰이 생긴 이후 새롭게 자리 잡은 ‘일상’의 모습이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들기까지 스마트폰과 함께한다는 뜻으로 ‘24/7디바이스(24hours 7days device)’라는 수식어도 붙었다. 이와 같은 스마트 기기에 대한 의존도와 중독성을 줄여보자는 취지로 ‘디지털 디톡스(digital detox)’라는 말이 등장했다. ‘디지털 디톡스’란 디지털(digital)에 ‘독을 해소하다’라는 뜻의 디톡스(detox)가 결합된 말로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해 몸과 정신에 안정을 주는 행위를 뜻한다.

따라서 사회심리학자 아담 알터(Adam Alter)는 자신의 새 책 “Irresistible: The Rise of Addictive Technology and the Business of Keeping Us Hooked(저항불가: 중독 기술과 관련 산업의 부상)”에서 오늘날 어린이에서 어른에 이르는 모든 이들이 디지털 기기에 중독돼 있다고 경고한다. 그리고 여기서 중독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 중독임을 강조한다.

뉴욕타임스는 뉴욕대 스티븐 경영대의 부교수인 심리학과 마케팅 전문인 알터 박사와 두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디지털 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현실과 함께 벗어날 수 있는 방안들을 들었다(Why We Can't Look Away From Our Screens).

Q: 당신은 어떻게 사람들이 디지털 기기와 소셜 미디어에 중독됐다고 생각하게 됐나요?
A: 과거에는 중독이란 헤로인, 코카인, 니코틴과 같은 화학 물질에 관한 단어였다. 오늘날 한 기술업계의 전문가가 내게 한 말에 따르면, 사람들은 하루 거의 3시간을 스마트폰을 보며 지내며, 이는 행위 중독(behavioral addiction)이라 볼 수 있다. 10대 소년들은 때로 자신의 방에서 1주일 동안 연속으로 게임을 하기도 한다. 스넵챗은 청소년들이 하루에 18번 이상 자사의 앱을 열어본다



디지털 디톡스를 체험할 수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캠프 그라운드'. 참가자들은 디지털 기기를 집에 두고 참가한다. 4일 동안 자연 속에서 햇목을 만들거나 낚시 등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간을 자신의 게임에 보내기를 원한다.

어떤 모바일 게임들은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요구하며, 이 때문에 그들은 당신이 게임을 계속하도록 만든다. 개발자들은 슬롯머신이 때때로 잭팟을 터뜨려 사람들이 일어 서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게임 안에 보상을 만든다.

게임 제작자들이 여러 버전의 게임을 만든 뒤, 테스트를 통해 사람들이 가장 잘 넘어가며 가장 오래 플레이하는 버전을 찾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실제로 통한다.

내 책에서 나는 무려 45일 동안 연속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을 한 한 젊은이와의 대화를 실었다. 이런 중독적인 행동은 그의 삶을 완전히 파괴했다. 그는 게임의존증에 빠진 젊은이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리스타트(reSTART)라는 워싱턴 주에 있는 재활 치료센터에 들어갔다.

Q: 이를 막기 위해 법제화가 필요할까요?

A: 적어도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하는 것이 나쁜 생각은 아니다. 한국과 중국

장기적으로 볼 때 생활에 해를 끼침에도 그 행동 계속하면 중독 게임중독자가 컴퓨터에 앉았을 때 그의 뇌는 약물중독자와 비슷 스티브 잡스, 자기 자녀에게는 아이패드 사용 금지시켜

고 자랑한다. 오늘날 행위중독은 온갖 곳에 존재한다. 2011년의 한 연구는 우리 중 41%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행위중독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했다. 이 숫자는 보다 중독적인 새로운 소셜네트워크 플랫폼, 태블릿,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더욱 높아지고 있다.

Q: 당신은 “중독(addiction)”을 어떻게 정의하나요?

A: 나는 당신이 무언가를 당장은 즐기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당신의 생활에 해를 끼친다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동적으로 그 행동을 계속한다면 이를 중독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그런 경험에 사로잡히게 돼있다. 누군

가를 슬롯머신 앞에 앉혀 놓게 되면, 그 사람의 뇌는 그가 헤로인을 맞았을 때와 질적으로 동일하게 된다. 충동적으로 게임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는 아니겠지만 특정한 게임에 중독된 사람의 경우,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때 그 사람의 뇌는 약물 중독자의 뇌와 비슷하게 된다.

우리는 특정한 경험이 무언가를 자극하게 되면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을 분비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도파민이 쏟아지면 우리는 당장은 만족감을 느끼게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내성을 가지게 되며 더 많은 양을 원하게 된다.

Q: 디지털 기기를 만드는 이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을까요?

A: 게임 개발자들은 사람들을 중독에 빠뜨리려 한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저 사람들이 가능한 한 오랜 시

에서는 현재에서 신데렐라법이라 불리는 법안이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특정한 게임을 밤 12시 넘어서는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The Korean Christian Press ■ 편집국장: 유원정

<p>·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lachpress@gmail.com</p>	<p>·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p>
--	--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p>학위과정 Degree Programs</p> <p>ESL Program</p> <p>Bachelor Degree Programs Business Administration, Music, Theology(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Aviation Management (General Aviation Management & Flight Aviation Management & Helicopter Flight, Flight Dispatcher, Flight Attendant: Cabin Crew)</p> <p>Master Degree Programs Counseling, Education, Music, TESOL, M.Div, MBA</p> <p>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usic, Doctor of Leadership, Doctor of Ministry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p> <p>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p> <ol style="list-style-type: none">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p>2017년 항공학과 신설</p> <p>국제 항공기 조종사, 헬기 조종사, 항공 운항사, 객실 승무원 양성</p> <p>본교에서는 F-1 Visa 와 J-1 Visa 를 발행하며 집중영어교육(항공전문영어), 비행 조종 실습 및 항공사에서 인턴십도 가능합니다.</p> <p>J-1 VISA EXCHANGE VISITOR PROGRAM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J-1 Visa Sponsor 허가</p> <p>Midwest University는 미국 연방정부 국무성으로부터 교환교수, 연구원, 교환학생을 위한 J-1 Visa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스폰서로 지정 받았습니다.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수와 각 기관의 연구원, 공무원, 교사, 선교사님들은 안식년 동안 본교에 와서 연구나 강의를 할 수 있으며,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교환학생으로 본교에 와서 학점을 취득 하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허가를 받아 인턴으로 미국의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p> <p>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p>
--	---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571) 730-4750 / Fax:(571) 730-4751
E-mail: wdc@midwest.edu

신호등 돼주신 아버지가 그림다.

(1면에서 계속)

학교에서 코치와 선생님이 일하는 남자들이 있는데, 많은 아이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라 코치나 선생님을 진정한 아버지상으로 여긴다고 말한다.

참 아버지가 드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쿠바의 작가 호세 마르티는 이렇게 말한다. "교육은 남자아이들을 진정한 아버지로, 여자아이들을 진정한 어머니로 만드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이것만큼 중요한 목표는 없다."

사내아이들은 진정한 남자의 본보기를 찾지

못하면 괴로워한다. 거꾸로 진정한 아버지상을 한번 본 아이는 나중에 좋은 아버지와 지도자가 되기 마련이고, 많은 사람의 삶을 바꿀 유산을 남긴다.

강력한 제국을 건설한 로마의 힘은 가정교육에서 나왔다. 로마의 전통적인 교육은 학교가 아니라 아버지가 중심이 되는 가정교육이었다. 시민의 권리와 의무, 무기를 다루는 비법 등이 식탁에 마주앉은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오갔다.

더 이상 아내에게만 모든 것을 맡겨선 안 된다. 이대로 방치하면 '아버지의 실종'이 가족 해체와

공동체 해체로 전멸될 수도 있다. 무너진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출발은 아버지와 자식 사이의 따뜻한 편지 한 줄에서 시작될 수 있다.

아버지들이여, 진정한 아버지로 돌아가자. 서로 격려하자. 두려움이 관계를 완전히 지배하는 시대에 진정한 아버지는 꼭 필요한 존재다. 외로움과 고독 그리고 절망이 판치는 시대에 우정, 사랑 그리고 희망을 주고 신호등이 되는 아버지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 겉으로는 강하지만 속으로 한없이 약하고 정이 많은 우리의 아버지에게 진심을 담은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보자!

그늘진 곳에 복음의 빛 비춘다.

(1면에서 계속)

2003년에 IJM은 포주와 소아 성매매를 제재하지 않고 있는 캄보디아의 사법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최초의 대대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색은 프놈펜에서 정보원 활동을 하면서 목적이 나고 발각될까봐 두려울 때면, 사도 바울의 권고를 되뇌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롬12:12). 시간이 흐르면서 "두려움은 갈망을, 갈망은 그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변화로 이끌었다."

어느덧 10년이 지났을 때, 색은 자기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고 또 캄보디아 최고 그룹에 속하는 변호사가 됐는지를 IJM 컨퍼런스에서 이야기했다. "하나님은 저만 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저의 가족, 지역사회, 그리고 나라도 바꾸셨습니다."

2004년과 2005년 사이에 색과 그의 팀은 캄보디아에서 인신매매를 뿌리 뽑기 위해 경찰 및 사회복지 단체와 협력해 변장한 매춘업소, 길가의 마사지 업소, 네온 조명이 반짝이는 가라오케 바

를 꾸준히 감시했다. 그리고 500명이 넘는 희생자들을 구출하고, 아동 성매매 140건을 색출하여 법정에서 세웠다.

그 결과 IJM 조사에 따르면 2015년, 캄보디아 주요 도시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미성년 소녀는 약 2%로, 몇 년 전에 비해 4분의 1로 줄었다.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에는 18세 미만의 소녀가 매춘 산업의 30%를 차지했다고 캄보디아 정부는 추산한다.

10살이 채 안 된 어린 여자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성매매를 하는 스바이 팍에는 여전히 머리가 허연 외국인들이 눈에 띈다. 그러나 오토바이를 빌려 타고서 먼지를 풀풀 날리는 이곳 프놈펜 외곽에서 그들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접대는 기대할 수 없다.

IJM이 급습했던 이 지역을 현재는 아가페 인터내셔널 미션(AIM)이 접수했다. 지저분하기만 했던 이 지역을 탈바꿈시키기 위해 AIM은 이곳 성매매 업소들을 인수해 교회나 클리닉, 쉼터, 공장 등으로 바꾸었다.

"저는 이 지역이 바뀌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이 캄보디아에서 제일 냄새나고 더러운 곳이라고들 했습니다." 스바이 팍에서 자랐고, 지금은 이곳에서 AIM의 300여명 직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는 팍 소코디는 말했다.

팔과 그의 이웃들, 그리고 수많은 캄보디아 국민들은 평생 "환난을 겪어야" 했다. 1975년 크메르 루주 공산주의 혁명가들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캄보디아의 도시들은 황폐해졌고, 지식인과 종교인들에 대한 대학살(인구의 20%에 이르는)로 170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생존자들은 국경 난민캠프로 도망가야 했다.

이런 끔찍한 고통을 겪은 세대는 농장과 공장 그리고 성매매업소에서 파탄에 이른 경제를 회복하려 했다. 그러나 캄보디아 교회지도자, 사회복지사, 정부 관리, 성매매 희생자들의 이야기는 최근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혀 다른 변화의 풍경을 들려준다. 그리고 이 변화의 주역은 거의가 크리스천들이다. 그들은 이 나라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희망의 빛을 본다.

(계속)

소망 칼럼

문제 속에 해답이 있다



박재호 목사 (브라질 새소망교회)

이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뿐이다.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세상에 살면서 문제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성도는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환영해야 한다. 왜냐하면 문제는 성공에 이르는 자극제이기 때문이다. 지금 당면한 문제는 내가 더 강해지고 성공의 기회가 된다. 인생의 문제는 하지 말라는 정지 표시가 아니라

방향표시라고 했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해답이 있다. 그러므로 문제를 만났으면 그 문제 안에서 해답을 찾아내야 한다. 큰 문제는 이제 손 털고 그만 두라는 신호가 아니라 힘을 더 내고 더 열심히 하라는 신호이다. 문제는 기도하라는 신호이다. 문제는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신호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불가능이 없다.

성도는 어떤 문제, 어떤 걱정거리가 생겨도 두려워하거나 놀랄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 된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나님의 자녀 된 성도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시련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강한 능력으로 힘이 되어주시고 문제보다 더 큰 신앙을 부어 주시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하였다.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쉬운 일은 어려운 것처럼 시도하고, 어려운 일은 쉬운 것처럼 행하라"고 했다. 하나님을 믿고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일을 성경말씀에 입각하여 신앙과 기도로 해결하기 바란다. 인생길에서 만난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신앙으로 대처하면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한 소년이 학교도 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공장에 들어가 일을 할 만한 기술도 없어 자신의 미래를 놓고 걱정하다가 사진 찍는 기술을 배워 사진기사가 되어 보겠다는 생각이 들어 도시에 있는 큰 서점에 사진기술에 대한 책을 주문했다. 그런데 책을 주문받은 서점의 착오로 사진기술에 대한 책이 아닌 '발성법'에 대한 책이 배달되어 왔다. 그런데 이 소년은 너무 가난해서 그 책을 돌려보낼 만한 우송료도 없거니와 발송하는 방법도 몰라 실망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래서 소년은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다. 그리고 이왕에 받은 책이니 읽어 보자하고 한 줄, 한 줄 책을 읽으면서 발성법에 대해 공부했다. 날이 갈수록 목소리가 점점 아름다워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 마침내 소년은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었다. 이는 세계적인 성악가로 전 세계인들에게 이름을 날렸던 유명한 찰리 맥카시의 일화이다.

옛말에 전화위복이라고 했다. 화가 바뀌어 복이 된다는 뜻이다.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든 낙심, 실망, 불평하지 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화가 복이 되어 오히려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롬8:28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는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였다. 그러니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우리가 당하는 문제들은 그 문제 속에 반드시 해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어떤 문제를 당하거든 기도하기 바란다. 성경을 근거로 문제를 풀어보기 바란다. 하나님을 믿고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 힘을 내어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 신자에게 해결 못할 문제는 결코 존재하지 아니한다.

nammicj@hanmail.net

'저항불가' ...스마트폰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2면에서 계속)

동아시아에서 게임과 인터넷 중독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중국에는 수백만 명의 청소년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있고, 몇 달 동안 치료사에게 치료를 받으며 이를 벗어나게 만드는 캠프에 부모가 아이들을 보내기도 할 정도로 심각하다.

Q: 왜 당신은 새로운 디지털 기기들이 행위 중독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나요?

A: 음, 요즘 사람들을 보면 안다. 한 조사에서는 성인 60%가 침대 옆에 스마트폰을 둔다고 답했다. 다른 조사에서는 절반의 응답자가 한밤중에 이메일을 체크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이런 새로운 디지털 기기는 중독적인 미디어의 완벽한 도구로 작동하고 있다. 게임과 소셜 미디어는 한때는 거실의 컴퓨터에서만 접속 가능했지만,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 공간의 제약 없이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소셜 미디어를 쉬지 않고 확인하고 이는 일상을 파괴한다. 우리는 창밖의 풍경이나 눈앞의 대화 상대 대신 인스타그램 사진에 얼마나 많은 "좋아요"를 받는지에 사로잡혀 있다.

Q: 그게 어떻게 문제가 되나요?

A: 스마트폰을 하루에 3시간 한다면, 이는 당신이 다른 사람과 얼굴을 마주볼 수 있는 시간을

그만큼 잃어버린다는 뜻이다. 스마트폰은 당신이 별 노력 없이도 당장을 즐길 수 있게 만들어준다. 모든 것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기억할 필요가 없다. 무언가를 기억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능력을 개발할 필요도 없다.

나는 스티브 잡스가 2010년 한 인터뷰 중, 자신은 아이들에게 아이패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한 것을 흥미롭게 생각한다(뉴욕타임스 기사, Steve Jobs Was a Low-Tech Parent). 사실 실리콘 벨리의 유명인 중에 자신의 아이들에게 이런 디지털 기기를 쓰지 못하게 하는 이들은 매우 많다. 베이 지역의 한 사립학교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어떠한 디지털 기기도 가지고 오지 못하게 한다. 진짜 흥미로운 사실은 이 학교 학생의 부모 중 75%가 실리콘벨리의 임원들이라는 사실이다.

이 학교에 대해 듣고 나서, 나는 책의 제목을 "저항불가(Irresistible)"이라 지었다. 이런 기기들을 만든 전문가들은 어떤 잠재적인 위험을 본 것임에 틀림없다.

Q: 당신은 11개월 된 아들이 있어요. 아이와 있을 때 당신은 디지털 기기들을 사용하나요?

A: 나는 아이와 있을 때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사실 이 규칙이 내가 스마트폰을 잠을 잘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다.

Q: 당신도 디지털 기기에 중독돼 있나요?

A: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스마트폰의 여러 게임들에 때때로 중독된다. 내가 조사한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나는 이메일에도 중독돼 있다. 이메일을 확인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다. 나는 이메일을 모두 정리하지 않고는 침대로 가지 못한다. 스마트폰을 침대 옆에 두지 않으려 노력하지만, 계속 침대 옆에 두게 된다.

이 기술들은 우리를 사로잡도록 개발된 기술들이다. 이메일과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끝이 없다. 트위터 피드도 끝이 없다. 하루 24시간 동안 앉아서 피드를 올려도 우리는 끝이 도달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더 자주 자주 들어오게 된다.

Q: 만약 당신 친구가 당신에게 이런 행위 중독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을 구한다면 어떤 조언을 줄 건가요?

A: 나는 우선 이런 기술들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를 살펴볼 것을 권한다. 그다음은 보호구역을 설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방식은 저녁 6시 이후로는 이메일에 답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일반적인 원칙으로는, 디지털 기기 없이 누군가와 얼굴을 마주보고 오랜 시간을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런 상황의 시간을 늘려야 한다. 마치 1950년대 같은, 방에 앉은 당신이 지금 당신이 어느 시대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늘려야 한다. 하루 종일 액정 화면만을 쳐다보는 안 된다.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450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이미경 간사 1-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달변가가 대세

몇 년 전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호남 지역에 유서 깊은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교회 담임목사님께서 한 여 집사님에게 교회 역사를 설명하게 하셨습니다. 양철찬 외모와는 달리 구수하고 감

칠맛 나는 전라도 사투리로 말을 시작한 집사님은 말씀씨가 매우 뛰어나셨습니다.

그 집사님의 설명은 조리 있고 재미까지 있어서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막힘없이 청산유수로 흐

르는 그 집사님의 이야기에 모두가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참석한 목사님들의 부러움을 살만한 달변가였습니다.

전에도 그랬겠지만, 요즘은 말을 막힘이 없이 잘하는 사람이 '인기 짝'입니다. 정치인이든, 예능인이든, 직장인이든 사기업이든, 그리고 목사들까지도 말을 잘하는 달변(達辯)가가 대세입니다. 그 반면에 말주변이 없고 어눌한 사람, 말이 서투른 늘변(訥辯)가는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쉽게도 말의 내용보다 달변인지, 늘변인지에 따라 지지도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6개월 사이에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 후보자들의 TV토론에도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후보자는 상대 후보자들의 인

신공격에도 자신이 해야 할 말을 차분하고 조리 있게 설명하는 반면에, 어떤 후보자는 '한번 물어보자'는 식의 거친 말투와 막말로 대응을 하였습니다. 또 어떤 후보는 달변으로 상대를 공격하는데 성공을 해서 호응을 얻었고, 어떤 후보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변을 잘 못해서 지지층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SNS에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의 글이 종종 올라옵니다. 그런 사람의 글에 네티즌들은 '라이크'(like)를 누르거나 동조하는 댓글을 남기곤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바른 말, 정의로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남의 눈치 보지 않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민주주

의 꽃입니다. 하지만 '바른 말'이 곧 '옳은 말' 일까요?

문제는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나는 솔직하다. 뒤끝이 없다. 나는 할 말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은연중에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바른 말'의 기준이 되어 남을 선부르게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지혜롭지 못한 말을 합니다. 남에 대한 배려 없이 내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남을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말을 잘하십니까? 혹시 달변가입니까? 그런데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많지만 불행하게도 '잘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아시나

요? 혹시 바른 말을 즐겨 하시나요? 그런데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바른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지요? 오직 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만이 바른 사람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세상 속의 크리스천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잘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른 말을 하는 사람'보다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잘 말하는 사람과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달변가'입니다. 이런 '달변가 대세'인 세상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으시니라"(잠 12:22).

푸/른/초/장

차군규 목사
(순복음부천교회)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갈수록 사악해지고 타락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보이는 부분이 전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치열한 영적 싸움의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말한 대로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충만을 입어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대적하여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1:8)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이 귀신을 몰아내고 병을 치료하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하늘의 능력을 소유했을 때만이 가능하기

인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편지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좇아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2. 어떻게 성령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1) 회개하여야 합니다. 성령충만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인간 편에서도 준비가 필요한데 그것이 곧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후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행2:38)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거하는 더럽고 추악한 죄의 흔적들을 회개함으로써 깨끗하게 하여야 하고 이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 간절히 기도를 드릴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성령도 사모하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기대하고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주시기도 하며 또한 각 사람의 성품과 달란트를 살피셔서 형편에 맞는 사역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일하고 계신 성령께서 육체는 가지고 계시지 않으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이심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3. 성령과 교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미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성령님과 깊은 교통 가운데로 들어

2) 성령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성령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서 대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는 성경을 통하여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적인 교제가 필요한데 성령님과 영적인 교제는 성령을 기쁘고 찬양하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하여는 항상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 드리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습니다. 성령님과 영적인 교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뜻과 인도하심을 구할 때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2장 1-4절)

또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입을 이유는 성령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행할 수 있고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세상을 진실과 공의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사람으로 그 안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 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때와 동일하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워야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하겠습니까.

3)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유능한 사람일수록 모든 일을 자신의 능력과 의지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보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절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의 산은 평지가 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공적으로 일을 마무리해 주십니다. 즉 우리 손에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다림줄을 손에 쥐어 주시는 것입니다.

2) 순종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은 시기와 분이 가득하여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도들을 옥에서 꺼내 주었고 사도들은 성전에서 거대히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순종함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합당하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은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도 증인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며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가야 합니다. 이는 결혼식 자체보다 결혼 생활이 더 의미 있고 중요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1) 성령님의 대하여 잘 알아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의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지성과 감성 그리고 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분입니다. 지적인 능력을 가진 성령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고전2:10)고 말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슬퍼하시고 마음속으로 성령을 거부하면 떠나가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의 뜻

3)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말씀을 증거 하시고 난 다음 베드로를 동행자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영적인 구주가 되실 뿐 아니라 우리 삶의 동행자가 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인생 동행을 하시는 분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세울 때,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이 성령님과 협력 사업이 되어야 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인생을 위하여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 1. 79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 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Campus Courses 2017 가을 학기 강의 안내

Sept 18-22(9월 18-22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 (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Sept 25-29 (9월 25-29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Research Design (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디자인)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om Stallter & Dr. Stephen Park

On Online Courses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Oct 9 - Dec 1(10월 9일-12월 1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Seoul, Korea

Oct 30-Nov 3(10월 30일-11월 3일) DI Cross-Cultural Teaching and Learning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Nelson Jennings

Chicago, IL

Oct 23-27(10월 23-27일) PM 8061 Pastoral Counseling(목회상담)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Kwanyik Lee(이관익박사)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성령이 없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역사하여
야 된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인
예배는 더욱 성령께서 충만하게
운행하셔야 되는 것이다. 열심과 열정
을 가지고 기도나 말씀 선교 전도에
헌신한다하여도 하나님의 일은 성
령께서 함께 하시므로 마침내 주님
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이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도 성령
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
신조차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
는다면 가인처럼 자기의 의를 자랑
하는 사람이 되고 책망 받는 존재가
될 따름이다.

그런데 만약 주를 위한 일이라 할
지라도 그 일을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
올 것인가? 사람의 방법과 뜻으로
할 뿐이요,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곧 형식적인 신
앙으로 급속히 변질되고 말 것이다.

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조
상으로 두고서 그들의 입술로 아브
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이 영혼은 불쌍하기
짝이 없는 피폐한 모습이었다. 그들
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지 아
니하고, 자기의 조상들이 드렸던 전
통에 따라 의식적으로 행한 것이었
기 때문에 하나님이 흠하는 예배
가 아니요, 기뻐하시며 찾으시는 예
배자가 될 수 없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종교화 되었으며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보다는 자신들의 가정생활
만을 행복한 삶으로 국한시키는 것
을 본다. 또한 이들의 신앙적 태도
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회학적으로
나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며 문학적
로 이해하고 원리를 찾는 것을 좋아
한다.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
다.

또한 종교화된 사람들의 특징처

다'라고 위로하고 그들로 하여금
마음에 거룩한 부담조차도 허용하
지 않는 것을 본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소개하며
전도할 때 나누는 전도지에 어떤 교
회들은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라고 기록할
정도가 되었던 것이다. 또한 위로의
목회를 추구하고 있어 위로와 사랑
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죄와
심판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
하고 있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
른다. 즉 가급적이면 힘든 이민생활
에 신앙생활까지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다시 예배를 회복-형식적 신앙의 극복
지금 시대를 예레미야 당시와 비
교할 수 있다. 당시 국가적으로 매
우 심각한 상황이었다. 하나님의 심
판과 멸망이 바로 목전에 다가온 상
황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돌이키지 아니하였

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현
실이다. 사도행전 2장 42-47절
말씀에는 예배가 회복된 사람들의 모
습이 소개되고 있다. 이들은 부활하
신 주님을 만나고 승천하시는 주님
을 만난 사람들이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
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
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
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
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의 필요를 따라 나누주고 날마다 마
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
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
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
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
다 더하게 하시니라"(행2:42-47).

예배가 얼마나 아름답게 회복되
었는가? 이렇게 예배가 회복된 그
리스도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교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신앙생활하면서도 늘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 현재 받은 구원이 완전한 것인지요? 확실히 천국 갈 때까지 안전하
게 보장받은 것인지요, 아니면 우리가 잘못 범죄하면 지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혹 중간에 믿다가 신앙을 포기하게 되어 지옥자식이 될
수도 있는지요? 분명하게 말하는 성경 말씀을 통해 알고 싶습니다.
-나성에서 장 집사

A: 저도 과거에 이런 고민과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신학적인 면에서 다르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
만 이 시간 성경구절을 가지고 확실하게 답하려 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
씀드리면 현재 받은 구원은 안전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안전보장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주는 것이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
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을 예정론을
믿는 장로교에서는 구원의 황금체인(golden chain)이라 합니다. 혹은
구원의 파노라마라고도 합니다. 이 4가지가 체인처럼 고리로 연결이 되
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리가 도중에 끊어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예정(미리 정하신)-소명(부르심)-칭의(의롭다 하심)-영화의 문백
입니다. 구원의 4단계입니다. 첫 단계는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예정과

롬8:30...예정-소명-칭의-영화의 단계 거치며 성도의 전인으로 구원하심

선택입니다. 2단계는 부르심 즉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때가 되면 반드시 부르십니다. 전도를 통해 부르시든지 미국에 이민 와
서 친구 따라 교회 왔다가 부름 받은 자도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어
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 다니다가 신자로 부름 받았습니. 3단
계는 부름 받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동시에 하나님은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게 하십니다. 법적으로 의인이 된 것입니
다. 4번째 단계가 영화입니다. 구원의 절정은 하나님의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보좌에서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천군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천국까지
인도해주시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반드시 영화의
단계에까지 가서 구원을 받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사실 천국 가서 미래에 되어질 일인데 로마서
8장30절은 과거형으로 되어있습니다. 부정과거형입니다. 헬라어의 부
정과거형은 너무나 미래에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기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형으로 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교리라고 합니다. 견인은 인내한다는 말인데
내 힘으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내하여 결국
은 구원받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역경과 낙심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버
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장로교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7조 1
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
들이시고 유효적으로 부르시고 성령을 통해 거룩하게 하신 자들이 은
혜의 상태에서 완전히 최종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
그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끝까지 인내하여 결국은 영원한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거듭난 사람도 타락하여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님의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여 의의 길로 돌이키도록 만드
십니다. 내가 다리를 절편 부축해주실 것이요 걸을 수 없다면 주께서
업고라도 천국에 인도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불순종의 길을 가
면 내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주
실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찬사 제자교회)

다시 예배를 회복함으로 세상과 죄를 이김

-형식적인 신앙, 종교적인 삶, 부담 없는 교회생활

특별히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인
예배생활에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
을 전제하지 못한다면 어찌될 것인
가? 로마서12:1 '너희 몸을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
리라'라는 말씀이나 혹은 레위기 말
씀 가운데 '흠 없는 생축을 하나님
께 제물로 드리며 예배하는 자와 말
라기 말씀 가운데 '병든 것 저는 것
흠이 있는 것을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들과 그 결론들은 생각해 보면,
성령의 임재가 없는 형식적 예배와
신앙생활은 상상하기 어려운 절망
이 됨을 알 수 있게 된다.

전통주의와 형식주의, 종교학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
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리에 따라
내 마음대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
는 그 자체가 이미 죽은 것이요, 병
든 것이다. 예컨대 형식이라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형식주의가 되
었다는 것은 이미 그 자체가 생명력
없이 형식만 남아 행하는 자들을 말
하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형식
주의는 단순전통주의와 맥을 같이
한다 하겠다.
전통주의의 메인 이스라엘 백성

럼 앞장서서 헌신하려고 하기보다
는 자신의 감정을 앞세워 늘 조용하
게 뒷자리에서 지켜보며 순리에 따
라 행하고 종교를 이용해 나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 간섭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내가 원하면 하
는 것이고,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원치 않으면 싫다"는 것이다. "종교
가 나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다.

부담을 주지 않는 신앙생활과 교회
그리스도인임에도 종교화되고 형
식주의적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은 이사야 30장 10절의 말씀처럼 '그
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
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
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
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아
고 말한다. 또한 예레미야 6장
14절의 말씀처럼 "They have
healed also the hurt of the
daughter of my people slightly,
saying, Peace, peace; when there
is no peace.(그들이 내 백성의 상
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
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

게 이방 나라를 들어 저들을 치기
일보적전이었다.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는 이미 견혔고 그들에게 진노
하셨기에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하
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도 볼 수
없었다.

그 이유는 저들의 죄 때문이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
하게 되면 백성들은 죄를 절대로 이
기지 못한다. 또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죄의 역압을 풀지 못한다.
결국은 사탄도 이길 수가 없다. 세
상의 세속도 이길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당시의 메시
지는 "괜찮다 시간이 지나면 다 나
아질 것이다. 위로하고 위로하며 평
화하라"고 하였던 것이다. 축복도
좋고 사랑도 좋고 위로도 좋지만 그
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세상과 죄를 이길 힘을 상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역
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엄청난
사탄의 꾀계와 다름과 후욕과 시
기, 질투, 미움이 성도들의 삶 속에
가득하다. 성도들이 세상과 죄를 이
길만한 힘을 빼앗겼던 것이다. 한마

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
고 두려워했다. 또 교회에는 주님의
승리와 생명과 감격이 있었음을 보
게 된다. 하지만 우리의 교회들이
정반대로 흘러가 모이기를 힘쓰지
아니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를 거부하며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 예배가 무너졌다면 얼마나 비
극이었겠으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다.

사람이 원하는 쪽-위선과 타락
자고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속
임과 도적질 상정이기도 하고 또
한 교회와 진리의 상정이기도 하다.
불의로 재산을 모은 사람은 자기가
놓지 않은 일을 품는 자고새와 같아
서 인생의 한창 때에 그 재산을 잃
을 것이며 말년에는 여러척은 사람
의 신세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사람이 원하
는 쪽으로 가면 형식적인 신앙이요,
종교적인 삶이 되어 하나님을 속이
고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가게 되며 타락하게 되는 것이다.

(13면으로 계속)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www.rptse.com

동부개혁신장로회신학교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군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의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학과

대학부	신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회학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문의처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동부개혁신장로회신학교

학장 장영춘 박사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네시아의 부나크(BUNAK)



세계에서 인종적으로 가장 다양한 인구를 가진 종족들 중의 하나이며, 3백개 이상의 서로 다른 다양한 민족의 인구구성을 이루고 있는데 그 중 다수가 무슬림이다. 인도네시아의 많은 섬들은 남동아시아에 위치해 호주, 유럽과 아시아 본

토대륙 사이를 잇는 중요한 바다를 차지하고 있다. 이 섬들은 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에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6만9천7백명, 인도네시아 부나크(The Bunak)족은 누사 텡가라(Nusa Tenggara) 지역의 티모르섬의 중부 내륙에 위치하고 있다. 그들은 섬의 주요 거주민중 하나이고, 그들의 언어는 부나크(Bunak)인데, 어떤 다른 언어와 연관을 찾아보기 힘들다. 부나크족의 상세한 생활모습이나 문화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다. 그러나 그들은 티모르에 살고 있는 다른 원주민들과 매우 비슷할 거라

고 추측한다.

삶의 모습

티모르(Timor) 섬은 약 280마일 정도의 길이, 너비 65마일이다. 라멜라우산의 정상은 9,679피트이다. 연중 강수량의 거의 대부분이 12월부터 3월까지 일어나는 몬순시절에 내린다. 땅은 빈약하고 자연 그대로의 식물은 드문드문 있다. 그러나 다양한 유칼리나무, 백단나무, 자단나무, 대나무 그리고 티크 나무 숲이 있다.

포르투갈인들은 1500년대 초에 티모르에 정착했고 독일 무역상들이 1613년에 처음으로 섬에 착륙했다. 포르투갈인과 독일인들은 토지 점유권을 두고 경계를 정하는 동안 일련의 합의과정을 거치면서 경쟁했다. 독일 티모르는 서쪽에 중심을 두었고, 1950년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일부가 됐다. 포르투갈

티모르는 동쪽에 중심을 두었고, 1975년 후반에 인도네시아에 의해 강제로 합병됐다.

티모르의 경제는 농업에 의해 좌우된다. 경작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뤄졌고, 주요 생산물은 옥수수, 쌀, 커피, 과일 그리고 "코프라(기름을 내는 코코넛과옥 말린 것)"이다. 티모르 근해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인도네시아-말레이의 후손이다. 그들은 부나크족과 같은 말레이시안 원주민들을 산으로 내몰았다.

부나크 마을들은 종종 일개의 정착민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산에 있는 "스위덴스(별초해 태우는 농법에 의해 정리된 땅)"에 일년중 얼마동안 머문다. 그러나 곡식을 수확한 후에는 자신들의 마을로 돌아온다. 각 마을은 신성한 집이 있는데, 관리하는 제사장과 주변에 접근금지 구역이다. 과거에 있었던

근해(coastal warfare)의 전쟁 때문에 마을들과 고립된 집들은 말뚝 방파제로 둘러져 있다.

부나크 후손은 남자와 여자 모두를 통해 이어져 오며 혈연관계는 다양한 하위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나 그 중앙에 남자, 여자와 그들의 아이들로 이루어진 핵가족이 있다.

신앙

오늘날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은 지배적인 종교이며 많은 수가 믿고 있다. 1300년대 전에는 힌두교가 넓게 퍼져있었으나 지금은 단지 소수의 사람들만 따르고 있을 뿐이다. 인구의 약13%가 기독교인이며 주로 개신교도이다. 그리고 중국인의 다수가 불교-도교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 아직도 부나크와 같이 외진 곳에 떨어져 살고 있는 부족들은 애니미즘을 따르고

있다. 머리사냥(headhunting)은 최근에 와서야 금지되고 있다. 부나크는 또한 "조상숭배"도 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티모르의 합병동안 1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군대에 의해 죽었다는 고소들이 있다. 그 지역에서의 정치적인 긴장감으로 인해, 1991년 인도네시아 군인들이 그들의 저항세력을 대량학살했다. 많은 섬 주민들은 정서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부나크는 그들의 언어로 사용할 만한 기독교 자료가 없다. 그러나 최근에 그들 안에서 사역하는 2개의 선교단체가 있다. 성경과 다른 자료들이 그들의 언어로 번역돼야 하며, 선교사역은 확장돼야 한다. 그때 부나크는 예수 안에서 참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교회 등 종교 떠나는 한국 젊은이들’ 알자지라 이례적 분석

외국의 한 언론이 분석한 한국 젊은이들이 종교를 떠나는 이유다. 카타르의 위성방송인 알자지라(Al Jazeera)는 지난달 28일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



왜 한국의 젊은이들은 종교를 떠나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한국 청년들은 세속주의의 물결 속에서 종교기관의 위계구조에 대한 반감,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지 못하는 종교의 한계를 실감하면서 자신이 신봉하던 종교를 떠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랍권의 대표적 방송사가 한국 청년들의 종교 이탈 현상을 깊이 있게 다뤘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기사 제목은 종교(religion)라고 썼지만 사실상 한국 기독교의 현실을 짚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방송은 한국교회의 ‘젊은이 잡기’ 노력을 소개했다. 대한성공회가 시도하는 TV 토크쇼 형태의 예배와 청년과의 대화 시간 등을 비롯해 영락교회 목회자들이 젊은 신자들과 격의 없이 토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영락교회는 한국의 인기 방송 프로그램인 ‘유희열의 스케치북’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소개했다. 사랑의교회는 스마트폰 앱을 보급해 청년세대들이 성경을 쉽게 찾도록 돕고 있다고도 전했다.

대한성공회의 청년과의 대화 프로그램은 미국의 ‘가볍게 대화하는 신학토론(Theology on Tab)’ 프로그램 차용한 것으로 커피숍에서 누구나 모여 신앙 뿐 아니라 개인적 관심사와 사회·정치적 이슈도 토론한다고 소개했다. 또 매월 마지막 주일은 20-30대 청년들을 위한 예배로 차별화 해 성공회 특유의 성례전을 실시하고 강대상 없이 설교를 전한다.

알자지라 방송은 전문가의 말을 인용, “많은 한국 교회들이 권위주의적 구조 속에 있으며 수평적 의사소통 구조와는 거리가 멀다”면서 “이들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의욕적으로 참여하려는 동기를 차단해 교회를 떠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방송은 청년들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예배 등 종교 활동을 방해하면서 청년 스스로 종교적 관심을 잃고 있다고 설명했다. 높은 청년 실업률에 교회가 특별한 대책이나 영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현실도 꼬집었다. 방송은 이 점이 한국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취업할 수 없는 청년들은 교회에 나오기를 꺼려하고 자연히 취업한 친구들과도 섞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알자지라 방송은 한국 통계청과 갤럽 자료를 인용, 교회가 편의점보다 많은 상황이라고 소개하면서 한국교회의 역사도 간략히 소개했다. 한국교회는 미국 선교사에 의한 선교 결과로 확산됐으며 한국전쟁 이후 제도권 교회로 성장했지만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 종교(기독교)를 떠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알자지라 방송 홈페이지 상단에 배치되는 등 비중 있게 보도됐다.

로봇이 축복 말씀 전한다?...비텐베르크에 등장

로봇이 인간을 축복할 수 있을까. 전기를 쬐어야만 움직이는 기계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상처 받은 인간의 영혼을 어루만져줄 수 있을까.



5개 국어로 축복 메시지를 전하는 ‘로봇 목회자’가 마르틴 루터의 고함이자 종교개혁의 성지인 독일 비텐베르크에 등장했다고 30일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다.

‘BlessU-2(블레스유투)’라는 이름의 이 로봇은 아직 성경구절을 들려주는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미래 교회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블레스유투는 터치스크린이 있는 가슴과 두 개의 팔, 머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기능은 비교적 간단하다. 사람들이 터치스크린으로 듣고 싶은 성경 구절을 선택하면 로봇이 사람의 음성으로 들려준다. 목소리는 남녀 변환이 가능하다. 또 독일어와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폴란드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로봇은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고 보호하신다(God bless you and protect you)”는 식의 짤막한 메시지를 전한다. 이때 양팔이 올라가거나 손에서 불빛이 나오기도 한다. 로봇은 웃는 표정을 지을 수 있고 원한다면 성경구절을 인쇄해준다.

이 로봇은 엔지니어이자 미디어 아티스트인 알렉산더 비데킨드 클라인이 종교개혁 500주년 전시회에 맞춰 개발한 작품이다. 클라인은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16세기 인쇄혁명의 바람을 타고 유럽 전역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처럼 기술의 진보가 미래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논쟁을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로 작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블레스유투는 종교개혁 500주년 전시회 현장에서 큰 인기를 모았다. 공개 첫 주에 600만 이상 축복 메시지를 전했다. 블레스유투는 오는 9월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인기는 도왔지만 로봇 목회자가 당장 인간을 대신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로봇 책임자인 슈테판 크렘은 “많은 사람들이 블레스유투에 흥미를 느끼고 있지만 로봇은 결코 목회자의 사역을 대신하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는 다만 기술의 진보를 신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할지를 논의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북한 해커들, 한국 사이트 겨냥 ‘물웅덩이 공격’

‘물웅덩이 공격(watering-hole attack)’ 해커들이 공격 대상의 방문 사이트를 미리 감염시켜 피해자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는 방법으로 기존의 메일 등을 통한 감염과는 차원이 다른 기법이다. 뒷을 놓는 것과 같은 이 새로운 사이버 공격 수법으로 북한 해커들이 한국의 정부 관련 사이트 등을 공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3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골든 액스(Golden Axe·황금 도끼)’란 작전 명으로 한국에 대한 ‘물웅덩이 공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익스플로러에서 일반 응용프로그램과 웹을 연결하기 위해 제공되는 ‘액티브X(ActiveX)’가 이런 사이버 공격에 특히 취약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에선 건강보험 등의 공공 서비스 부문과 인터넷 뱅킹 분야에서 여전히 액티브X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이버 보안업체 하우리의 사이먼 최 소장은 WSJ에 “북한 해커들이 점점 강력해지고 있으며 기술도 향상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2008년부터 정부 기관 사이버 보안 컨설팅을 해 온 최 소장은 “북한 요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교신 과정에서 트위터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도구를 통해 암호화된 메시지를 교환한 적도 있다”면서 “그들(북한 해커들)은 잡히지 않고 컴퓨터를 통과하는 길을 찾아냈다”고 경각심을 높였다.

현재 1300명에 이르는 대규모 해커집단을 보유한 북한은 한국 관련 사이트에 하루 평균 약 140만 건의 해킹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해커들은 6개 그룹으로 분류·편성되어 있고 이들을 보조하는 5000여 명 규모의 12개 지원조직이 활동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해커들은 3개 분야로 나뉘어 운용되는데 ‘라자루스’로 알려진 A팀은 외국 은행과 외국 회사를 담당하고, B팀은 한국을, C팀은 이메일을 해킹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B팀은 한국 국회의원과 군 관계자 및 외교관들이 자주 방

문하는 무역협회와 연구기관, 산업단체 등의 웹사이트를 감염시킨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북한군 제재 포함...대북압박 높인 미국

미국과 유엔이 동시에 대북제재에 나섰다. 북한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1일 인민군과 국무위원회 등 북한의 군부와 핵심 정부기관 등 단체 10곳과 개인 4명을 제재대상에 추가했다. 특히 러시아인과 단체가 처음으로 미국의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제재대상에 오르면 미국 여행이 제한되며, 미국인 및 미국 기업과 거래가 차단된다. 이 때문에 러시아가 미국의 제재조치에 항의했다.

제재대상을 살펴보면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뚜렷하다. 제재대상에 포함된 조선컴퓨터센터는 독일과 중국, 시리아, 인도, 아랍에미리트연합 등에 해외지사를 설치하고 해외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회사다. 북한은 전 세계 40여 개국에 약 5만 8000여명의 노동자를 파견 중이다. 또 다른 북한의 돈줄인 석탄과 광물수출회사들도 대거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송이무역회사는 석탄과 아연 등을 수출하고 있다. 독립석유회사는 러시아 기업과 원유공급 계약을 맺고 100만 달러 상당의 석유제품을 수입한다.

이성현은 내각 합영투자위원회 부국장 출신으로 2014년 5월 평양 고려호텔에서 원산-금강산지구 개발계획을 발표하는 등 외국인 투자 유치에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광은 내각 문화실에서 약기공업관리국 무역처장을 맡아 고가의 사치품을 수입하는 업무를 맡은 것으로 추정된다.

제재대상에 포함된 러시아인과 러시아 기업들은 북한의 군수 연구개발과 조달 업무를 담당하는 단군 무역회사와 연계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일 오후 회의를 열고 제재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규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제재대상으로는 개인 15명과 단체 4곳이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으로는 조일우 정찰총국 5장관, 김철남 조선금산무역회사 대표, 김동호 주베트남 단전산업은행 대표, 박한세 제2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용무 전 국방위 부위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美우선’, 결국 파리기후협정 탈퇴 선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선언했다. 파리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미국 경제와 주권을 해친다는 게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은 탈퇴의 변으로 “나는 파리 시민이 아니라 피츠버그(펜실베이니아 철강도시) 시민들을 대변하는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핵심 지지층인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 부흥을 위해 에너지 정책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에 충실했다고 주장하자 세계 각국 정상들로부터 비난이 쏟아졌다.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만든 것이지만 자국이 주도한 협정을 스스로 걷어차면서 미국의 국제사회 리더십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백악관에서 “파리협정은 미국 경제를 해치고, 미국 근로자들을 좌절시키고, 미국의 주권을 약화시키며, 미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며 “오늘부터 파리협정의 비구속적인 조항 이행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파리협정을 이행하면 2025년까지 미국의 일자리 270만개가 사라진다”며 “미국에 불리한 파리협정을 폐기하고 기후변화협정을 다시 협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1)에서 195개국이 체결한 파리협정은 지난해 11월 공식 발효됐다.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 수준 대비 2도 이하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파리협정을 주도한 미국은 온실가스를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 감축하고, 2020년까지 30억 달러를 개발도상국 지원에 쓰기로 약속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탈퇴 선언 직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등 주요국 정상들과 통화하고 재협상을 제안했다. 그러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정상들은 곧바로 공동성명을 내고 “파리협정은 돌이킬 수 없으며 재협상 대상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파리협정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된 인식이 응집된 결과”라며 “중국은 기후변화 문제를 고도로 중시하며 앞으로도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전 세계는 더욱 야심차게 파리협정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래를 거부한 결정”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단 극단주의 테러에 실리컨밸리 육먹는 까닭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끔찍한 테러가 잇따르면서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 등과 같은 실리컨밸리 기업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극단주의자들이 테러를 선동하는 주 무대가 사이버 공간으로 옮겨가면서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이런 움직임에 제대로 규제하고 감시할 의무를 소홀히 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런던브리지 테러’ 발생 다음 날인 4일 “지하디스트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허락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이버 공간이 극단주의자들에게 ‘안전한 공간’이 되고 있다는 비판의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전한 것이다. 메이 총리는 이를 막기 위해 국제 협정과 같은 더 강력한 대책이 법규가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테러리스트들을 막지 못했다는 비난이 처음 공론화된 것은 지난 2014년이였다. 당시 영국 하원 정보안보위원회는 페이스북이 영국 군악대 리 락비 상병을 살해한 테러범의 정보를 사전에 넘겨주지 않았다는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다.

이후 영국뿐 아니라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등 유럽 곳곳에서 테러가 잇따르고 테러리스트들이 소셜미디어를 매개로 테러를 선동하는 징후가 포착되면서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역할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커져만 갔다.

하지만 기업들은 수백만 개에 달하는 계정과 게시글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해결책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점을 토로하고 있다. 일례로 유튜브에는 1초마다 400시간 분량에 달하는 동영상 이 업로드되고 있을 정도다.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자신들이 그간 이 문제에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도 항변한다.

트위터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테러리즘 선동과 연관했다는 이유로 37만6천 개 이상의 계정을 정지시켰으며 유튜브도 테러단체의 일원이 운영하는 것이라는 합리적인 믿음이 생기면 해당 계정을 종료시키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테러에 대항하는 자신들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인공지능(AI)이 더 좋은 접근법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테러와의 전쟁을 돕는 것과, ‘표현의 자유 수호’라는 가치 사이에서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균형을 잘 잡아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 셈이다.

소셜미디어상의 규제 강화에 맞서 테러리스트들이 접근법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도 고민거리다.

영국 킹스칼리지의 테러 전문가인 피터 노이만 교수는 “대형 소셜미디어들이 지하디스트 계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지하디스트들은 이제 텔레그램과 같은 암호화된 메시지 서비스로 갈아타고 있다”며 “전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를 다르게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SEED선교회 연구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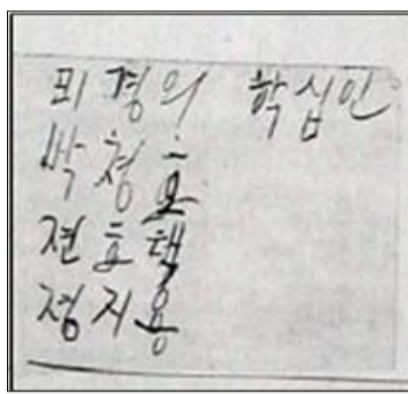
28. 이경의(1870년경-1918년 10월 15일)

이경의(K.E. Lee)는 1870년경에 강원도 강릉군 군내면 경석동에서 태어났다. 그의 영어이름이 Kyeng Eui Ye가 맞다면 그는 1904년 10월 6일에 '차이나' 선박을 이용하여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당시 그는 33세의 홀아비였다. 상항을 거쳐 나성을 지나 그는 캘리포니아 주 레드랜즈에 도착한다.

호, 김지우, 조성일, 임지성, 안석중과 차 우 등이었다. 이들 중 장지춘은 1907년 12월 9일에 떠나고, 모



북미자지한인야소교회



학습인명단, 첫 번째가 이경의다.



공립신보, 1909.2.17

1907년 레드랜즈 북미자지한인야소교회 첫 한인목사로 사역 이경의 중점 사역은 교회영구유지... 항일운동에도 참여 네바다, 유타에서 농사일 하면서 경제적 지원 및 전도

북미자지한인야소교회

북미자지한인야소교회는 미국 감리교가 1906년에 캘리포니아 주 레드랜즈에 설립한 한인 감리교 예배처소였다. 사진에는 'Korean M. E. Mission'이라는 간판이 걸렸고, 오른쪽 기둥에 '북미자지 한인 야소교회(北美紫地韓人耶蘇教會)'라는 간판이 세워져 있다. 자지란 레드랜즈를 붉은 땅이라고 번역한 한자이고, 야소는 예수의 한자어다.

이곳에 미국 북감리교가 파송한 전 내한 의료 선교사 윌리엄 B. 맥길 박사가 거주하고 있었다. 맥길 박사는 그의 부인과 함께 1889년 8월 27일에 내한하여 서울과 원산 및 공주 등에서 10여 년간 환자를 치료하였고 복음도 전했다. 귀국하여 레드랜즈에 안착한 그는 미국인 제일연합감리교회 여성내지선교회와 더불어 조선 민족에 대한 오늘날의 다민족 선교에 힘썼던 것이다.

이경의는 백인교회인 레드랜즈 제일감리교회에서 학습을 받았고, 그의 영어 이름이 David Ye라면 1907년 12월 8일에 본 교회 F.M. 라르커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곧바로 이경의는 북미자지 한인야소교회의 최초 한인목사로 사역한다. 그의 목회는 후임 전효택에게 전임하던 1908년 12월경까지 맥길 박사와 더불어 다년간 계속되었다.

1906년부터 1910년까지 21명의 한인교인이 있었다. 이중 1906년 12월 23일에 세례 받은 한인은 장지춘, 모기준, 차평찬, 황정일, 박창



묘비 없는 이경의 묘지

기준은 한국으로 이명 되고, 황창일은 상항으로 이명가고, 박창호와

김지우는 모 년 12월 9일에 떠나고, 조성일은 세크라멘토로 떠나고, 안석중은 앨렌드로 이명 간다. 이경의의 중점 사역은 교회 영구유지에 있었다. 백인교회로부터 조금도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열심히 연조하여 각색 경비를 담당할 뿐 아니라 교회 영구유지 목적으로 특별헌금을 하였다. 이경의는 매년 5달러를 헌금했다. 1909년 1월에 헌금한 사람은 총 25명이었고, 총 헌금액은 108달러에 이르렀다.

1905년 12월 공립협회가 레드랜즈에도 16명이 발기하여 그 지부가 조직되었다. 그도 공립협회에 가입하여 동족상애, 환란상부, 항일운동에 뛰어들었다. 노동과 공부 강조되는데서 1906년 11월에는 야학이 설치되고 영어를 가르쳤다. 십여 명이 모여 안석중의 집에서 모였고 전 주한 선교사였던 미국 의사 맥길과 한인 김응규가 영어를 가르쳤는데 이들 두 선생은 1909년까지 계속

에베드리고 복음을 전도하였다. 이경의의 민족사랑은 솔트레이크 시티까지 확장했다. 1909년 4월 10일 이광윤과 함께 국민회가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특별한 강연으로 청중을 움직였다. 그 해 5월 국민회가 러시아 브라디보스톡에 국민회 지부를 설치하는 일로 이 강과 이교답을 파송할 때 이경의는 10달러를 기부했고, 그 해 10월 신병으로 고생하는 박순기가 약값이 없던 중인데 그도 2달러 50센트를 후원했다.

1909년 이경의는 유타 주 트리몬톤으로 이주한다. 그곳에서 그는 감자농사를 크게 하면서, 주택을 신축하였고, 말 4필을 세워 명년 농사를 크게 할 모양이었다. 1913년 그는 무 농사로 많은 이득을 보았는데 윤순삼의 경우는 순 이익만 1천불이었다. 이경의가 이 지역과 갈랜드에 흠어져 무 농사를 하던 이용신 등 7명에게 전도의 손길을 펼쳤을 것이다. 이경의의 메시지가 공금하면

다만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계신 줄 깨닫게 하리요 하더니, 수일 후에 객이 다시 심방한 지라, 주인이 겸손한 낫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접하여 객실 노인도 한쪽 앉아서 담화할 새 객이 문득 눈을 들어 방 안에 완화물과 벽상에 걸린 그림자를 보고 화공의 비사히 고명한 상사와 완화물을 만단공장의 기묘한 재주를 탄복하고 화공의 이름과 공장의 이름을 묻거늘 주인이 가로되 이는 다 나의 아들이 만든 것이라 하매 객이 더욱 놀라 주인을 칭찬하더라. 이윽고 주인이 객을 데리고 화원으로 인도하니 그 화원은 극히 정밀히 꾸민 곳이요 향기로운 꽃이 가득한 곳이요 화원 가운데로 길을 정교히 만들었는데 십자모양으로도 만들었고 흑 정자로도 만들었는데 보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지라. 객이 가로되 이 화원을 만든 공장은 세상

과연 웅도다. 그런 즉 이로 비교하여 보건데 그대가 내 아들을 보지 못하고 그 만든 것보고 아름다운 줄 알았으니 이로써 우리가 보는 바 일월성신과 산천조목과 금수곤충 생긴 것을 참신 하나님께서 지으신바 아니요? 천지간에 주재되신 하나님이 없겠는가 한데 객이 이에 대각하여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공경하여 전에 못 하던바 동포를 사랑하고 애국성심으로 국민에 직분을 하였다하오니 장하다. 이상 말씀한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저 객이 참 이치를 깨달아 자기직분을 다한 것 우리 형제도 어서 깨달아 하나님의 대도로 이 세상에 있을 동안의 국민의 직분을 하여 비참한 경우를 벗어나서 자유 복락을 부르면서 교육과 농사를 정결케 하고 전국에 학당을 건축하여 조실부모 상한 아이들과 가난한 집 자녀들을 가르쳐 사회에 문명을 진보케 하는 것이 주를 믿는 우리의 당당한 의무가 아닌가!

1916년 이경의는 40에이커 땅에 무이사당 농사를 시도했다. 그런데 일기가 갑자기 추위 절반만 수확하기에 이르렀다. 이경의 외에 박지섬과 이병권이 17에이커, 홍재성이 12에이커, 황세영이 21에이커, 김응규가 7에이커로 총 97에이커에 손해금이 6천불에 달했다. 이경의는 자신의 어려움을 뒤로 하고 이들을 심방하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이곳에서도 이경의의 민족사랑을 볼 수 있다. 그는 1911년에는 국민의무금을 납부했고, 1914년에는 유타 주 갈랜드의 국민무금 수봉위원으로 위촉되기까지 한다.

그런데 1918년 1월 이경의는 천식으로 나성 인근 샌베르나디노 공립병원에 입원했다. 신한민보는 그가 미주에 이주한 후 사회와 교회에 대하여 쌍방으로 헌신하여 동포의 일이라면 공사를 막론하고 도움을 주었는데 이제 도움을 받을 처지에 있음으로 동포와 신도들은 돕자고 호소했다. 다음 달 하중원 등 11명이 '이경의 병비의연'을 발기하여 기부금 마련을 시작하여 총 100불 이상이 모금되었는데 신한민보는 '일반의 동정이 따뜻한 것을 느낀다'고 보도했다.

1년간 병상에 있던 이경의는 1918년 10월 15일 상오 9시 30분에 향년 48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샌베르나디노 공립병원에서 별세했다. 이병역은 이튿날 인근 마운틴 뷰우 공원묘지에 그를 안장했고, 국민회는 그의 장례비 98불 47센트를 제공했다. 그런데 본 공원묘지 직원 칼로스는 묘비가 없이 묻힌 그의 묘지 사진을 찍어 친히 필자에게 보내면서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다.

damien,sohn@gmail.com

가르치고 있다. 유학생 조병진이 학비가 없어 곤고 막심한 것을 보고 특별히 돈을 모아 그의 학업을 도왔는데 이경의도 2달러를 기부했다. 그는 1907년 공립협회 레드랜즈 지방 회장대리를 맡았고, 이듬해 레드랜즈 공립신보 발매소의 사무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모에파와 트리몬톤

이경의는 1908년 11월 경 농사를 경영하면서 전도하는 오늘날의 이른바 '뱀'(BAM: Business As Mission)에 큰 관심을 가졌다. 이듬해 1월 일당 나성으로 이주하여 인근 옥스나드에 토지를 구하려고 노력하다가 그는 네바다 주 모에파에 농장을 설치하게 된다. 그는 1909년 2월 백인학교를 빌려 매 주일 한인 동포를 모아 하나님께

대도 1910년 3월호에 기고한 글 "구주를 찾음"을 읽어보십시오.

"서국에 한 유명한 관원이 있으니, 저는 예수를 진실히 믿는 사람이요, 재산이 유여하여, 누각을 극히 화려히 짓고, 고원과 화중동산으로 좇아오는 향기를 머금고 사는데, 또한 아들이 있으니 총명이 과인할뿐더러, 하나님을 숭배함으로 경련애인의 품성을 겸전한 자라. 하루는 객이 오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고로 주인과 수작할 때에 매양 설만한 언사가 많은지라. 주인이 가로되 그대의 말이 심히 무례하니 하나님 노하실가 두렵지 아니 하뇨? 객이 가로대 내가 본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고 또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데 하늘을 두려워 하리요 하거늘, 주인이 그 말을 듣고 심히 통탄이 여겼으나 변론치 아니하고,

에 드문 재주를 포한 자라 하거늘 주인이 가로대 이도 또한 나의 아들이 만든 것이라 하니 객이 그 주인의 아들의 과인한 재주를 탄복하는지라. 주인이 그 객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니 정정한 수양수에 대광도 하고 도가 탈속한 집이 있는데 폭원이 광활한 국기를 반공에 달렸는지라. 주인이 객을 향하여 가로되 이 집은 내 아들이 지은 학당이라. 부모 없고 불쌍한 아이들과 가난한 집 자녀를 가르치는 곳 이라하니, 객이 왈 그대는 이와 같은 아들을 두었으니 참 복이 있는 사람이라 하거늘, 주인이 가로되 그대가 이왕 내 아들을 상면한데가 없거늘 어찌 칭찬하며 아름다운 줄 아느냐 하는데, 객이 왈 내가 일좌 그대 아들을 보지 못하였으나 그 지은 바를 보고 아노라하니, 주인이 그 객의 손을 잡고 가로되 사랑하는 친구여 그대 말씀이

2017년 가을학기

B 베데스다 대학교 신·편입생 모집

www.buc.edu

"ACF 선정 Online 교육과정 미주 7위" (2015)



입학상담 자세한 정보는 buc.edu를 통해 확인하세요.

1-714-683-1207 (입학처) ▶ admissions@buc.edu

TEL:1-714-517-1945 / FAX: 1-714-683-1440 ▶ www.buc.edu

모집학과

신학

- 학부(B.A.): 목회학/성서신학/기독교교육학/선교학
- 대학원(M.Div.): 목회학/성서신학
- 박사(D.Min.): 목회학 박사

음악

- 학부(B.A.)/대학원(M.A.)
- 건반악/관현악/작곡/지휘/찬양사역/실용음악/뮤지컬/컴퓨터, 영화음악

경영학

- 학부(B.A.)/대학원(M.B.A.)
- 일반경영/스포츠경영/법무행정
- 경영 지식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전문인을 양성합니다.

유아교육

- 학부(B.A.)/자격증프로그램
- 어린이집, 프리스쿨, 차일드케어 및 교회 유치부, 유년부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ESL

- ESL I-20/ Certificate
- 학부, 대학원생을 위한 본 과정과 ESL Certificate를 위한 어학연수 과정

온라인

- 학부(B.A.)/대학원(M.A./M.Div.)
- 전세계 어디든지 온라인과정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대학 스포츠팀

- 남녀 축구부/남녀 농구부/야구부
- 미국 기독교대학 체육협회 NCCAA에 가입되어 체육 특기생으로 학업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미국정규 4년제 대학교 SEVIS I-20발급

정부학비지원 (Financial Aid)

각종 장학금 혜택



730 N. Euclid Street, Anaheim, CA 92801

청교도 신앙 (33)

청교도의 결혼관(5)



이운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대한 책임이며, 상대방을 위한 염려와 배려 때문에 고난을 동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특별히 이 결혼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 슬기로운 아내를 하나 남게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이다(잠19:14). 배우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길을 지도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로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과 그의 종이 자식 이삭을 위해 며느리 리브가를 맞이하는 과정에 기도와 축복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듯이 현대의 크리스천 미혼들에게도 이 같은 기도의 과정이 필요하다.

배우자들은 서로가 연합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구해야 할 것이다. 청교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처음부터 불신자와의 결혼은 피해야 한다(고후6:14-16). 만일 이렇게 불신자와 결혼을 한다면, 이 두 사람의 목적과 방향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이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믿음의 공유가 우선적이지만 아름다운 마음과 잘 정립된 인격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 은 아름다운 열굴과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결혼한 부부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상호 간의 사랑과 봉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 서로에게 서로를 주셨다는 확신에 기초하여 그들 사이에 애정의 결속이 증대하고 있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청교도들은 이러한 확신에 선 결혼이 영속할 수 있도록 부부를 돕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 그들의 관심사는 무엇보다도 영속하는 결혼을 이루도록 부부를 돕는 것이었고 그들의 모든 노력은 이런 목적에 집중되었다. 그들은 실제로 결혼 상태에서 사랑과 선의, 존경과 존중, 평화와 만족, 공동 목적과 상호 의지를 지속하는데 많은 지혜를 쏟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첫째로 결혼은 전인격적인 결합에 기초한 것이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막10:9)는 분명한 결합관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합쳐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분리될 수 없는 것이며 이에 서약하고 결합된 두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말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들의 결혼은 하나님의 지배와 법칙 안에서 영위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혼은 자신의 감정에 따르는 주관적인 것만이 아니라 성실성을 가지고 지켜주는 평생의 상호 헌신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편과 아내의 영적 생활을 반영할 것이며 두 사람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성장을 반영해 줄 것이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 대해 성적인 사랑과 인간적인 사랑과 아가페적인 사랑 모두가 다 필요한 것이다.

넷째로 상호 정절이 필수일 것이다. 정절은 성적 순결의 최고의 미덕이다. 예수님은 사람이 순결에 역행하는 모든 행위와 욕망과는 철저히 관계를 끊을 것을 말씀하신다(마5:29). 사랑의 원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이 정절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결혼 전후의 정절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행위가기 때문이다. 이것은

서로 연합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구하도록 결혼의 원리, 목적, 열매 모두 하나님 뜻 가운데서 찾아야 결혼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어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결혼의 신성성과 영구성을 분명히 해주는 말씀으로서 결혼은 하나님의 의지에 근거하는 객관적인 사건이요, 하나님 앞에서의 소명이요, 하나님 앞에서의 윤리적인 삶이므로 죽는 날까지 결혼은 두 사람만의 결혼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로 결혼은 일부일처의 원칙에 따르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요4:16-18). 고대 근동이나 각 나라의 문화와 관습을 초월하여 성경적 창조주의 원리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천지 창조 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범하기 전에 주신 것으로서 에덴동산에서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선물이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셋째로 성경적인 결혼은 반드시 사랑의 결합이어야 할 것이다. 두 남녀가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결혼을 유지하기에 적절한 사랑이란 서로 관심을 가지는 능력이며, 서로에 대한 존경과 신뢰, 헌신과 성실, 동정과 용서라고 할 수 있다. 두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할 것이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 사랑의 성질은 남

배타적인 사랑이다. 마치 하나님의 질투적인 사랑처럼 부부간의 관계도 정절이라는 전제 때문에 질투적 사랑을 동반하지 않을 수 없다(야8:6).

마지막으로, 남녀는 주님 안에서 균등함이 필요하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로 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자의 가치와 존엄성과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서로를 필요하며 서로를 섬겨야 할 것이다. 결혼의 연합에 대해 사도 바울은 부부 사랑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한다(엡5:31,32). 결혼은 성경적으로 매우 신성하고 소중한 것이며, 우리 삶의 현실에서 볼 때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실수하면 처음부터 다시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매우 신중하고 신성한 일이다.

결혼을 통해 이루는 가정에서 개인의 신앙생활의 대부분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믿음의 결혼을 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명령하신 일이다. 이 결혼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 결혼이 믿음 가운데서 이뤄지지 않는다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전7:33-35). 결혼은 복이지만 또한 나 외에 상대방에

있기 마련이며, 때로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상실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혼을 위한 만 남부터 시작하여 계속해서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고 서로 도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결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정해주신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의 원리도 목적도 열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찾을 수 있다. 결혼관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창조되었다. 결혼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부부로서의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므로 서로 간에 성숙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

서로 간에 사랑하는 그 본질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을 다하여 순결한 모양을 갖추어야 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러한 결혼의 덕목들은 서로 사랑하며 헌신하며 인내하는 부분에서 잘 나타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성경적인 결혼관을 세우고 적용할 때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혼과 시작과 과정과 열매가 될 수 있으리라.

younsuklee@hotmail.com

사·모·칼·럼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의교회)

가족의 설날

가정 가정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아이들한테 꼭 그렇게 말해야 했냐고, 아이들하고 좀 놀아 줄 수 없냐고... 불평하는 하는 아내, 치우고 돌아서면 다시 발 디딜 틈이 없이 어질러 놓는 아이들, 맨날 그렇게 교회에 가야하냐고... 필요 없는 건 좀 사지 말고... 짜증내는 남편, 이렇게 가족은 이런 사소한 일에도 감정의 밀바닥까지 드러내며 급기야는 이혼을 운운하기도 한다.

아내의 마음속에 남편의 마음속에 자식의 맘속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 하는지 그 단어 하나만 집어 넣어주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것이 없어서 서로 악약거리고 의심하고 아파하고...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길을 찾아줄 수 있지만 자기 가정 안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어쩌하나... 수억의 사람들 가운데 겨우 4-5명으로 여겨진 내 가족, 그들은 서로 닳았다. 코드 눈도 말하는 것도 닳았고 걷는 것도 웃는 것도 화내는 것도, 심지어는 병도 닳아서 같은 병을 앓는다는데. 이렇게 몇 안되는 나를 닳은 가족 속에서도 '너 때문에' 라고 까닭을 찾고 생채기를 내고 조금만 더 섬겨달라고, 내가 더 힘들다고 목청을 높이는 우리네들...

사람이 태어날 때 그리고 분향으로 돌아갈 때는 누구나 다 혼자 오고 가지 만, 이 땅에 와서 사는 동안에는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경험하라고 같이 사는 가족을 주신 것이리라. 사람이 함께 살 때의 가장 기본은 서로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나이트 부부는 '아프지 않는 게 서로를 가장 사랑하는 일이라고...' 그런데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데... 그렇다. 가족이 함께 살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보다 가능한 폐가 되지 않고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 애쓰며 사는 것이리라.

부부 싸움도 그렇다. 받은 것보다 더 큰 것을 돌려주면 싸움은 영락없이 커지지만, 그보다 조금만 작게 돌려주면 그렇게 오고 가다가 그치게 될 텐데 말이다. 내 남편을 변화시키는 길은 내가 남편을 변화시키겠다는 의도를 내려놓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리라. 사실 남편을 변화시키려는 내 의도는 내가 편하고 행복하겠다는 이기심에서이지 않을까. 남편은 지금 이래로도 별로 불편한 것도, 변하고 싶은 것도 없는 그냥 그대로 좋다는 데 말이다. 사실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알게 모르게 그들을 참 많이 노엽게 한다. 어디라는 이유로, 못한다는 이유로, 게으르다는 이유로...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그래서 언젠가 한번쯤은 이 맺힌 것들을 풀어주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다. 자식에게 "정말 미안하다..."는 고백과 함께...

딸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말을 잘 하지 않았다. 무표정에 늘 화가 나 있는 얼굴 같은 태도에 속이 상하고 답답해서 급기야는 잔소리를 해낸다. "너 왜 그래. 뭐가 그렇게 불만이니? 너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기도하는 줄 알아?" 그래서 우리 딸은 엄마가 자길 위해서 기도하는 게 싫단다. 엄마가 자길 위해서 기도할 때는 속상할 때니까... 그런 딸이 이렇게 어른이 되어 이제 엄마의 맘도 알아주고 엄마와 쓰잘데 없는 문자도 주고받으니 행복은 이런 거다 싶다. 그렇다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의 고민과 아픔과 혼동이 있어서 부모의 눈에 차지 않는 행동을 하는 아이들... 그들에게 가장 큰 사랑은 속이 터져도 기다리고 기다려 주는 것이 아닐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 주셨듯이... 그러면 언젠가는 분명히 부모의 마음도 알게 될 것이고 주님의 사랑도 깨닫게 되리라. 기다려야 영혼을 살릴 수 있으니까...

매년 맞는 설날은 '설익은 날' '낯선 날' '설레는 날'이리라. 그날이 그날 같게 지루하고 감동 없는 익숙해진 매일의 날들에서 다시 낯설고 새롭고 다시 설레는 설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리라. 그렇다. 가족은 서로 너무 익숙해져서 서로의 고마움도 설렘도 무디어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매일 같이 대하는 남편을 보면서, 자녀들을 보면서, 교인들을 보면서 돌맹이처럼 흩어졌던 가족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와주는 것만도, 한주 동안 삶에 찌들었던 교회 가족들이 주일이면 옷매무새를 여미며 멋지게 교회에 나타나 주는 것만도 눈물겹도록 고마운, 그래서 다시 가슴이 뛰는 '가족의 설날'을 맞이하면 좋겠다.

그렇게 어제도 만났고 오늘도 만나고 또 내일도 만나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안보면 못 살 것 같은 하늘이 내 곁에 준 사람들... 그들의 기쁨과 슬픔, 고통까지라도 싸안으며 그들과 맺은 인연이 후회스럽지 않게, 그리고 나를 만나 행복했노라는 고백을 들을 때까지 죽도록 사랑만 하리라.

changsamo1020@gmail.com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주최

제3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추천 도서
당신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유석경 저/구장

광야의 소리, 윤종하
성서유니온

나는 아메리카의 한국인입니다
김준자 역/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감사 플러스 긍정 플러스
이영훈 역/아름다운 동행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교신문(시애틀,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나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유럽 크리스천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크리스천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월드(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천 리버(시드니, 호주), 크리스천 포스트(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천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크리스천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후원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도서 구입처), 로고스 선교회(회장 박도원 목사)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베델서적 949-854-9191 bethelbook@hotmail.com
조이서적 213-380-8793 www.joyla.com

1.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2. 방법: 추천도서 4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17년 10월 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3.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4.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1,000, \$5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회장 장영춘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목회서신

하나님의 미소와 찌푸림



여승훈 목사

미국 내에서 기후변화가 가장 심한 곳 중의 하나로 중서부 지역을 꼽는다. 아침에 해가 떴다가 점심 쬐에는 구름이 끼었다가 오후에는 비가 내렸다가 늦은 오후가 되면 금새 맑아진다. 기상도에 따라서 사람들의 얼굴 표정도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해가 뜨는 아침에는 햇살같이 웃다가 구름이 끼는 점심때는 얼굴 표정이 약간 굳어지다가 오후에 비가 내리면 얼굴이 우울하고도 슬픈 듯한 표정을 짓는다. 기후가 변하는 대로 얼굴 표정도 같이 변해간다.

고 생각한다. 반면에 상황이 나쁠 때는 하나님이 인상을 찌푸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기후 변화에 따라 얼굴 표정이 같이 변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얼굴 표정과 상황은 반대로 전개될 수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렇다. 상황이 좋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미소 짓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단이 그것을 이용한다. 상황이 좋고 하나님이 미소 지어준다는 생각에 짓어드는 순간, 사단이 당신의 마음을 높아지게 한다. 당신의 마음이 높아지면 결과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가 된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로 만들어서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 놓으려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 하나님의 위

로가 있고 기쁨이 있을 때 틀림없이 찾아오는 손님이 사단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을 그때에 사단은 어떤 상황 발생을 이용해서 그 위로와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할 것이다. 필자의 둘째딸이 12학년 때 처음으로 선포문을 사주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잃어버렸다. 나중에 훔쳐간 아이를 찾아서 물어보았더니 둘째딸이 선포문을 학교에 가져간 첫날부터 탐내고 있다가 7일째 되던 날에 훔쳐갔다는 것이다. 태어나서 선포문을 처음 가지게 되었을 때 저의 둘째딸의 마음은 얼마나 기뻐했는가? 그런데 잃어버리는 순간 그 기쁨은 모두 사라지고

슬픈 표정을 지었던 것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사단은 당신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그 순간에 당신의 기쁨을 빼앗아가기 위하여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눈앞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의 배후에는 항상 영적인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 성경은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한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사도 베드로의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사도 베드로는 제자들 가운데서 으뜸 되는 제자로 여겨질 정도로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관심과 지도와 위로를 받았던 인물이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신 후에 앞으로 장차 많은 고난을 받아 죽임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주여 주께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만류하였다. 베드로의 이런 만류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가히 충격적이다. "사단

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지도와 위로를 받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강한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차원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만류했던 베드로의 행동이 오히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방해 하려는 사단의 꾀에 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베드로의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다. 하나님의 위로와 형통케 하는 은혜로 인한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바로 그때가 가장 긴장 해야 할 시간이다. 왜냐하면 제자들 가운데서 으뜸 되는 제자로 여겨질 정도로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관심과 지도와 위로를 받았던 인물이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신 후에 앞으로 장차 많은 고난을 받아 죽임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주여 주께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만류하였다. 베드로의 이런 만류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가히 충격적이다. "사단

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는데, 그 힘이 하나님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유월절 절기에서 찾을 수 있다. 유월절 절기는 구속의 은총을 상징한다. 구속의 은총에 대한 감격이 광야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행진해 나가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성적 판단이나 경험적 판단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다는 것은 매우 힘든 행위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믿음의 여정을 견고하게 하는 힘이 원천적으로 없기 때문이다. 그 힘은 인간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으로부터 찾아온다. 행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라. 기뻐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라. 위로를 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단의 공격을 물리치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 복음이다.

“진리를 분별하며 거룩한 일꾼으로 헌신하라” 동부개혁장신 제 28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

동부개혁장교회 신학교(학장 장영준 박사) 제 28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이 지난 5일 저녁 8시 퀸즈장로교회 당에서 열려 캐나다분교 16명이 졸업했다.



동부개혁장신 제 28회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을 마치고 교수와 졸업생들이 기념촬영 했다.

예배는 이사장 김성국 박사 사회로 기도 허윤준 목사(뉴욕노회장), 성경복동 장영일 목사(캐나다분교 교무처장), 찬양 글로리아 아시어즈, 말씀선포 이용걸 박사로서 이어졌다. 이용걸 목사는 “바울의 기도”(살전 3:9-13)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사도바울의 기도제목인 오늘 본문이 여러분의 기도제목이 되기를 바란다”며 “첫째 믿음이 풍성하기를 기도하라, 둘째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하라 셋째,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역설했다. 이 목사는 “믿음의 모델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3단계 믿음은 1)고행과 친척을 떠나는 분리 2)내어 쫓는 단계 3)마치는 단계로 성장했다”며 “추상적인 믿음이 아닌 부활신앙으로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설교자가 아닌 목회자가 되며, 하나님이 면전에서 평생 준비하는 목회자가 되라”고 전했다. 학감 이규본 박사의 학사보고에 이어 장영준 박사가 학위수여, 시

상, 훈시를 했다. 장영준 박사는 “신학교의 교훈인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잊지 말고 첫째,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말씀의 실력자가 되라 둘째,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으라 셋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며, “학교에서 훈련받은 대로 말씀을 바로 분별하고, 진실과 겸손과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가정과 교회, 세상에서 인정받으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러 헌신하라”고 훈시했다. 정기태 목사(총동문회장)의 졸업생을 위한 기도 후 전덕영 목사가 축사를, 정관일 목사(캐나다분교장)가 격려사를 했으며 강혜영 집사의 축가 후 졸업생 대표로 이재환 전도사가 답사했다. 이재환 졸업생은 “참다운 사역자가 되도록 가르침을 주신 학장님과 교수님들에게 감사한다”며 “선지 동산에서의 배움을 마음 깊이 새기

고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고 말하고 기도와 지도편달을 부탁했다. 이어 학장 장영준 박사와 전 이사장 이용걸 목사와 전 부이사장 전덕영 목사, 전 이사 강기봉 목사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또 졸업생이 학교에게, 재학생이 졸업생에게 기념품을 증정했으며 학생처장 강기봉 목사 축사로 마쳤다. 졸업생은 다음과 같다. △목회학석사: 김순옥, 신동기, 오경창, 이숙규, 이재환, 최정환, 정지훈 △기독교교육학석사: 김미영 △여교역학: 문종희, 박정자, 이소영 △신학사: 김금희, 김정민, 전행복, 전미라, 이선자. 동부개혁장교회신학교는 1987년 개교이후 463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그중 목회학석사(Midiv)는 221명이다. (유원정 기자)

지 및 자연환경, 한국의 IT산업 및 글로벌 기업, 한국의 전통음식, 문화 및 스포츠 등 보다 폭넓고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등, 한국이 미주 지역에서 바로 이해되고 있는 것 같아 가슴 뿌듯했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번 수상자들 중 타인종 학생이 전체 수상자 중 35명(42%)인 점을 지적하며, 미주지역에서 한국어가 한국계뿐만 아니라 타인종에게 뻗어나가고 있음을 자랑스러워하며, 한국어의 영향력이 보다 더욱 커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오승걸 LA 한국교육원장은 앞으로도 이러한 장학생 선발을 통해 미국 내 한국어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확산시켜, 현재 125교에 불과한 미주지역 한국어반 설치 정규학교를 늘려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LA 한국교육원 (213)386-3112, 3113 (기사제공: LA한국교육원)

오렌지지방 감리사 이·취임 감사예배 기감미주자치연회, 배순창 목사 은퇴찬하식도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자치연회 오렌지지방 감리사 이·취임 및 배순창 목사 은퇴찬하 감사예배가 6월 4일 오후 5시 미주감리교신학대학교 예배실에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다.



(사진위)기감 미주자치연회 오렌지지방 감리사 이·취임 감사예배에서 45년의 교회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는 배순창 목사 부부, (사진아래) 그동안의 공로를 치하하는 새 감리사 이길준 목사(왼쪽)와 이임하는 직전 감리사임영호 목사(오른쪽)

이날 먼저 드러진 배순창 목사(팔로스버디스교회) 은퇴 찬하 감사예배는 이길준 감리사의 사회로, 이상호 목사(교육부총무)의 기도, 황준호 장로(사회평신도부총무)의 성경봉독, 오렌지 지방 목회자부부 찬양단이 특별 찬양, 최충수 원로목사의 ‘천국 시민의 의무’(빌1:27-28)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배순창 목사는 1947년 1월 22일생으로 성결신학대학을 졸업, 1971년 7월 이천지방광주감리교회에서 전도사로 시작, 1976년 5월 경기연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1992년 9월 미국으로 이민, 은퇴하기까지 팔로스버디스교회에서 24년을 시무했으며, 2003-4년 미서남부 지방회 감리사, 2011-12년 LA 서지방회 감리사로 사역했다. 이길준 새 감리사는 배 목사의 은퇴를 공식 선언하고 은퇴 찬하회를 증정하고, 은퇴 후에도 계속 선교사역에 헌신할 배 목사를 오렌지 지방 멕시코 선교사로 공식 임명했음을 공표했다.

기독교의사협회 영성 및 학술세미나 성료 주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저서 간담회 개최

미주기독교의사협회(회장 정종오)는 메모리얼데이 연휴에 1박2일간 필랜의 나눔동산 수양관에서 52명의 회원 및 가족들이 모여 영성 및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정희욱 목사와 장규대 목사의 전인치유영성세미나, 신인환 선교사의 아프리카 브룬디 나병환자의료선교보고 및 김용훈 박사의 중풍 및 50년 임상 학술세미나, 장재수 박사의 체형 교정치료는 참석자들이

의 뜨거운 반응을 받았다. 또 세미나 참석자들 중 아픈 사람이 치유됐으며, 감사들의 열정적 강의는 참석자들을 뜨겁게 열광시키고 좋은 반응을 얻었다. 본 협회는 매월 둘째 주일 오후 5시 소망장로교회에서 정기예배 및 한의사 보수교육 모임을 갖는다. ▲문의: (213)500-6393, 703-8541 (기사제공: 기독교의사협회)

민간외교관으로서 미국에서 한국 알리기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임태랑 평통회장은 영사관이 특별히 차세대들에게 관심을 갖고 총영사관저에 초청해 대화를 나눌 기회를 제공해주 준 점에 감사를 표했다. 참석 학생들은 “총영사관이 무슨 일을 하든지 알게 된 유익한 자리가 됐고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는 기회가 됐다”며 총영사와 북핵문제, 한국의 문화와 발전상은 물론 진로문제 등에 대해 대화 시간을 가졌다. 이 총영사는 “지금까지 차세대 학생들을 총영사관저에 초청해 직접 교류할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오늘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 총영사관저를 젊은 학생들에게 더 많이 개방해 나가겠다”며 “보다 많은 동포학생들이 한국의 발전상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 수 주류사회에 한국의 소식을 알릴 수 있도록 동포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34개교 458명 신청, 총 84명 수상 LA한국교육원 중·고교 한국어반 장학생 시상식

LA한국교육원(원장 오승걸)은 2일 오후 5시30분 교육원 정실관(1층 강당)에서 미국 서부지역(10개 주) 정규 중·고등학교 한국어반(59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우수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수여했다. 장학생 선발은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6명)가 해당 학생의 △한국어반 성적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관련 에세이 △한국어반 등록 연수 △한국어반 담임교사 추천서 등 4개 심사영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글대상 19명, 세종대왕상 25명, 훈민정음상 40명 등 총 84명의 학생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한글대상, 세종대왕상 및 훈민정음상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장학금(한글대상 300달러, 세종대왕상 250달러, 훈민정음상 150달러)이 수여된다. 특히, 수상자 중 16명에게는 장학금 대신 상장과 함께 타 지역 장

학생 21명과 더불어 금년 하계방학 중 한국방문연수(7월5일-21일)의 특권을 주어졌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하는 '2017년 정규 중·고교 한국어반 장학생' 선정은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더 나아가 미래의 지한(知韓)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 30개교 385명, 올해는 34개교 458명이 신청해 이날이 그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현재 미주 지역에 초·중·고·한국어반이 설치된 정규학교는 125개 학교이며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101개이다. 에세이 평가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CSULA) 이남희 교수는 “과거 한국에 관해 김치, 남북분단, 태권도 등 단편적인 주제를 쓰던 학생들이 최근에는 한국의 위대한 역사적 위인, K-팝, 한국의 유명 관광

지 및 자연환경, 한국의 IT산업 및 글로벌 기업, 한국의 전통음식, 문화 및 스포츠 등 보다 폭넓고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등, 한국이 미주 지역에서 바로 이해되고 있는 것 같아 가슴 뿌듯했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번 수상자들 중 타인종 학생이 전체 수상자 중 35명(42%)인 점을 지적하며, 미주지역에서 한국어가 한국계뿐만 아니라 타인종에게 뻗어나가고 있음을 자랑스러워하며, 한국어의 영향력이 보다 더욱 커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오승걸 LA 한국교육원장은 앞으로도 이러한 장학생 선발을 통해 미국 내 한국어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확산시켜, 현재 125교에 불과한 미주지역 한국어반 설치 정규학교를 늘려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LA 한국교육원 (213)386-3112, 3113 (기사제공: LA한국교육원)



평통 통일골든벨 수상자 초청 총영사관저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평통 통일골든벨 수상자 초청 주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저서 간담회 개최

주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총영사 이기철)은 1일 오후 6시30분 평통 통일골든벨 퀴즈대회 수상자들과 학교 및 평통 관계자를 총영사관저에 초청해 간담회 및 만찬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통일골든벨 수상자인 차세대 중·고등학생과 학부모, 정희남 남가주한국학원이사장

등 학교관계자, 임태랑 회장 등 평통 임원진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총영사관은 동포 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차세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동포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 위한 자리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기철 총영사는 환영사에서 “학생들이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등 학교관계자, 임태랑 회장 등 평통 임원진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총영사관은 동포 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차세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동포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 위한 자리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기철 총영사는 환영사에서 “학생들이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동부교계 게시판



퀸즈장로교회 2017년 전교인 여름 수련회
퀸즈장로교회 2017년 전교인 여름 수련회가 7월 2일(주)부터 4일(화)까지 뉴저지 허드슨 벨리 리조트에서 열린다.

UMC NNKUMW 전국 지도자 훈련
연합감리교회(UMC)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NNKUMW)가 주최하는 전국 지도자 훈련이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평화와 여성 공동체"라는 주제로 테네시 내시빌의 스키티 벤틀 센터에서 열린다.

제 11회 암환자를 위한 새생명 음악회
새생명선교회(대표 심의례 전도사)가 주최하는 제 11회 암환자를 위한 새생명 음악회가 6월 25일(주) 오후 6시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열린다.

뉴욕성결교회 설립 41주년 및 3대 담임목사 취임식
뉴욕성결교회 설립 41주년 기념예배 및 제 3대 담임 이기웅 목사 취임예식이 6월 18일(주) 오후 5시 본 교회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린다.

교회일보 우병만 목사 별세
교회일보 발행인 우병만 목사(사진)가 한국 시간으로 6월 4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향년 51세. 지병으로 투병하던 우 목사는 2일 뉴욕에서 한국으로 떠났으며 도착한 날 상태가 악화돼 별세했다.



본지 고문역임 김기호 장로 가족음악회

본지 고문을 역임했던 김기호 장로(퀸즈장로교회) 가족음악회 "다니엘의 음악이야기"가 지난 4일 저녁 6시 퀸즈장로교회당에서 열렸다.
퀸즈장로교회 트롬본 주자이기도 한 김기호 장로는 올해 88세로 미수를 맞아 가족들이 모두 참여하는 음악회를 열었다.

이에 2남 2녀를 두었으며 장남은 목회자(김지섭 목사, 웨체스터반석교회 담임)로 사역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김기호 장로 가족음악회를 마치고 전 가족들과 김성국 담임목사부부가 기념촬영 하고 있다.

뉴욕교협 정관개정 추진 부결 제 43회기 임시총회...투표자 54명중 37명 반대

뉴욕교협 제 43회기가 지난 5일 임시총회를 열고 정관개정을 추진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뉴욕교협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오전 10시30분 시작된 임시총회에서 회장 김홍석 목사는 회부에 앞서 "이번 정관개정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이 아니고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며 "할렐루야대회를 한 달 앞두고 임시총회를 한다는 데 부정적 시각도 있지만 잘 생각해주시고 적법한 절차로 협력해달라"고 설명했다.

남독(정기총회 때 받기, 서면으로 받음), 안건처리로 진행됐다.
총무 임병남 목사는 정관개정 취지를 개혁의 방향을 바꾸려는 설정으로 많은 교회의 연합을 위해 긍정적인 선거를 위해 △회원교회 정리를 위해 제도적 픽스(fix)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시총회를 할렐루야기도회로 변경하자 △정관개정위원회를 만들자 △공청회를 통해 시간을 가져야 한다 등의 의견이 오갔다.
김홍석 회장은 인사행위위원회를 통한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가부를 결정하자며 투표한 결과 총 투표

자 54명 중 찬성 13, 반대 39, 무효 2표로 정관개정안은 부결됐다.
이로써 지역자치행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작성된 개정안은 무효로 돌아갔다.
그러나 제 11장 제 24조 제 2항 "회장 부회장은 총회 제적 회의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하되"는 것을 "2/3 이상의 득표로" 되돌리고, 제 2항 "회장후보는 현 부회장이 출마할 수 있다"는 항목은 삭제됐다.
이는 2014년 총회에서 결의된 개정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불법이



지난 5일 뉴욕교협 임시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립해 마지막 찬송을 부르고 있다.



퀸즈장로교회 선교바자회가 진행되고 있다.

퀸즈장로교회 봄 선교바자회 성료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매년 개최하는 선교바자회가 지난 3일 본 교회 지하전교실과 주차장에서 열렸다. 동 교회가 봄 가을

로 여는 이 선교바자회는 교인들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에도 인기 행사로 자리 잡았다.
뉴욕에서 다민족 선교를 주도하고 있는 퀸즈장로교회는 해외선교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선교바자회에서 얻는 수익금은 이들 선교지를 후원하는데 사용된다.
올해 동 교회 해외 단기선교지는 카자흐스탄, 니카라과, 캄보디아, 온두라스, 중국, 인도, 에티오피아 등 7개국이며 6월 8-15일 카자흐스탄을 시작으로 선교팀을 파송한다. 또 미국내 인디언보호구역(7월 21-29일)과 맨해튼 할렐(8월 29일)에도 선교팀을 파송한다.
(유원정 기자)



할렐루야 2017 대뉴욕복음화대회 2차 준비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할렐루야대회가 '퀘렌시아' 가 되게 하자! 할렐루야 2017 뉴욕복음화대회 2차 준비기도회

뉴욕교협의 연례행사인 할렐루야 2017 대뉴욕복음화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교협은 지난 1일 2차 준비기도회를 가졌다.
회장 김홍석 목사는 "뉴욕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 날씨가 가까워지니 교계 원로 목사님들이 준비가 잘 되가는지 연락을 해 오신다"며 "한국(강사 측)에서는 이미 준비를 다 마쳤다는 연락을 받았다. 대회의 동원과 재정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후리산제일교회(담임 김정호 목사)에서 오전 10시30분 시작된 예배는 행사분과위원장 김희복 목사 인도로 기도 전회수 목사, 설교 조원태 목사, 특별통성기도 한석진 목사(미국과 조국을 위하여) 김주열 장로(뉴욕동포사회의 복음화와 교계를 위하여) 김영환 목사(할렐루야 2017 대뉴욕복음화대회를 위하여), 광고 최현준 목사, 축도 정정호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조원태 목사(인민자보호대책위원장)는 "퀘렌시아"(눅10:30-37)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퀘렌시아는 투우장의 소가 경기 중 재충전을 위해 쉴 수 있는 곳(자신이 찾는다고 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우리에게 퀘렌시아는 주님"이라고 말했다.

조 목사는 "오늘 본문에서는 주막이 '퀘렌시아'라고 볼 수 있는데, 교회가 환경에 불안한 이민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시선에 새롭게 세워져야 한다"며 "세상이 교회가 위기라고 하지만 이때가 예수 은총의 기회가 된다. 이번 할렐루야대회가 '퀘렌시아'가 되기 위해 우리 모두 교회의 외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2부 준비진행과정 소개에서는 김홍석 회장의 인사에 이어 김희복 준비위원장은 "이번에는 감사 후원이 없다"고 하니 회원교회들의 적극적인 후원이 필요하며 교협을 사랑하자고 강조했다.
총무 임병남 목사는 "개혁을 기치로 출발한 이번 회기 개혁의 클라이막스는 할렐루야대회"라며 "개혁을 위한 한 가지는 어디를 바라보느냐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바라보도록 방향만 틀어주어도 큰 개혁"이라고 말했다.
할렐루야대회 3차 준비기도회는 15일(목) 오전 10시30분 뉴욕우리교회(담임 조원태 목사)에서, 4차 준비기도회는 29일(목) 뉴욕늘기교회(담임 김홍석 목사)에서 각각 열린다.
(유원정 기자)

Worldwide Church Directory for NY, NJ, and Hawaii. Includes contact info for various churches like New York Bible Church, New York Presbyterian, etc.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 이터널라이프 '하나님의 나라' 특별공연을 마친 후 전출연자들이 인사하고 있다(사진제공: Jae Chun작가)

'The Kingdom of God' 특별공연 은혜한인교회 2017년 뮤지컬 이터널 라이프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창조문화선교단이 주최한 2017년 뮤지컬 이터널 라이프 'The Kingdom of God' 특별공연이 2일 부터 4일까지 개최됐다.

은혜한인교회 설립 35주년 특별 공연으로 기획된 2017년 뮤지컬 이터널 라이프 'The Kingdom of God' 특별공연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으며 그것은 바로 천국인 것이다, 천국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이며 그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임을 표현했다.

(박준호 기자)



주님의영광교회가 주최한 재정부흥회에서 참석한 자들이 합심기도를 하고 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성된 사람' 주제 주님의영광교회 재정부흥회, 강사 김미진 간사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가 주최한 재정부흥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성된 사람'이라는 주제로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본 교회 비전센터에서 열렸다. 30일 저녁 7시에 열린 집회는 본 교회 찬양팀 찬양인도와 신승훈 목사 사회로 시작됐으며 김미진 간사가 강사로 나서 말씀을 전했다. 김미진 간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은 재단생활과 장막생활을 반복적으로 했다. 재단생활은 하나님과 관계이자 하나님 중심적 삶을 나타내는 것이고 장막생활은 재물과의 관계다. 오늘날로 보면 교회 중심 말씀중심 기도중심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오늘날 교회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

사는 믿음 가운데 이뤄진다. 교회가 부흥을 갈망하지만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이 교회 안에 회복될 때 이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삶의 원칙과 목적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엄청난 재물을 금고에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라 말하고 "이 세상에 부자들의 종류는 성부와 속부로 나눌 수 있다. 성부가 되기 위해서는 소망을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 따라서 나눠주기 좋아하는 사람이고 너그러운 사람이다. 그리고 재물에 노예가 되지 말고 다스려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찬양집회 및 제 2차 성경필사 완료 남가주든든한교회 설립 16주년 기념 감사

남가주든든한교회(담임 김현인 목사) 설립 16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4일 오전 1부와 2부 예배시간을 통해 드려졌다. 이날 예배는 찬양팀들의 찬양으로 시작돼, 이완구 장로의 기도여 이어 김현인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남가주든든한교회 설립 16주년 감사 찬양집회를 인도하고 있는 이은수목사. 왼편은 담임 김현인 목사

김 목사는 '주님의 교회'(마16:13-28)란 제목으로 "주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고 정의한 후 "주님의 교회는 모든 사탄의 권세에 능히 이기는 교회(18절),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 얽힌 부분을 풀어내는 교회(19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공동체(23절)가 돼야 성숙한 탄에이저로 세워질 수 있다"고 말하며 "은성도들이 합심하여 진정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1시에는 찬양사역자 이은수 목사를 초청, 찬양집회를 개최했다. 설립 16주년을 축하하며 단에 오른 이은수 목사는 '내 영혼이 은성입어'를 오프닝 송으로 부른 뒤, '이제 내가 살아도 포기하지 않으리', '너는 내 아들이라' 등의 찬양을 들려주며 "내가 하나님을 믿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믿어 주고 계셨더라, 그 은혜로 오늘까지 찬양 사역자의 삶을 살아 갈 수 있었다"고 간증을 들려주며 은혜를 나눴다.

한편 남가주든든한교회는 지난 3월부터 시작한 제 2차 성경필사를 설립기념일에 완성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본 교회 성경필사는 성경 66권을 성도들이 한 권씩 나누어 필사하는 방법으로 주일학교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동참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성경필사를 마친 성도들은 "글씨를 오랫동안 쓰지 않았었기에 빼빼고 예쁘지 않아 속이 상하긴 했지만 한자 한자 옮겨 적으며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입을 모았다. 본 교회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제 3차 성경필사를 시작한다"며 "미주에 있는 교회들이 한번쯤 실시해 보면 좋을 것이다. 혼자 쓰면 지루하기도 하지만 온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니 서로 힘도 되고 감정의 은혜가 있었다"고 귀띔했다. 남가주든든한교회는 지난 2008년에 소천한 고 김충일 목사가 설립했으며 제 2대 담임목사로 김현인 목사가 사역하고 있다.

(이성자 기자)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가 되라" 열매교회 설립16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

열매교회(담임 김요섭 목사) 설립 16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이 지난 4일 오전 11시30분에 열렸다. 본 교회 소울워너 찬양단과 김요섭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사회자가 시편 23편 6절을 묵상 말씀으로 낭독했으며 김태균 장로가 기도, 할렐루야 성가 대가 찬양했다. 이어 안국현 목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살전 1:2-5)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서 열린 임수영 집사의 명예 안수집사 임직식은 김요섭 목사 사

회로 열렸으며 정인배 목사(케날배 학교 교수)가 권면 및 축사를, 김희영 집사가 축가를 불렀다. 이날 모든 순서는 김영상 목사(수원북부교회 원로)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열매교회 창립 16주년 감사예배 및 임직식을 마치고 임직자와 가족들이 김요섭 목사와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서부교계 게시판

은혜한인교회 청소년을 위한 '서머 콘서트'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GMI Youth Orchestra가 17일(토) 저녁 7시 비전센터 본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베토벤 심포니 1번과 베토벤 피아노 콘체르토 5번이 연주된다. 지휘는 정승재(OC of OC 심포니 부지휘자), 피아노 협연은 피아니스트 박명숙씨가 맡는다. 입장료 5달러. 당일 입구에서 구입하면 된다. ▲문의: (714)318-2085 이메일: gmiorchestra@gmail.com

밸리연합감리교회 점프 청소년합창단 초청 음악회
밸리연합감리교회(담임 류재덕 목사)는 시카고 점프 청소년 합창단 초청 음악회를 23일(금) 오후 7시30분에 개최한다. ▲문의: (818)366-0089

선한목자교회 성경적 종말론학교
선한목자교회(담임 고태형 목사)는 이필찬 교수와 함께 하는 성경적 종말론(요한계시록) 학교를 12일(월)부터 14일(수)까지 개최한다.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문의: (909)591-6500

토렌스조은교회 특별세미나
토렌스조은교회(담임 김우준 목사)는 '사랑이 사명입니다'라는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16일(금)과 18일(주)에 갖는다. 일정은 16일(금) 오후 8시 부부세미나, 18일(주) 1-3부, 오후 1시30분 자녀세미나이며 강사는 이철 목사(ITP지구총교회 담임)와 코스타 강사인 심연희 사모다. ▲문의: (310)370-5500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 부모세미나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담임 이성철 목사)는 '크리스천 가족의 7가지 습관'이라는 주제로 2017특별 부모세미나를 11일(수) 오후 1시30분부터 2시50분까지 무디 채플에서 갖는다. 강사는 김영성 박사(한국리더십 센터 회장/국제코치연맹 한국지회 회장). ▲문의: (972)258-0991

달라스연합교회 VBS
달라스연합교회(담임 김상태 목사) VBS(여름성경학교)가 14일(수)부터 17일(토)까지 개최된다. 주제는 'Fun Maker Factory'(유니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유치부)이며 시간은 평일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30분,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의: (972)245-1419

새크라멘토한인침례교회 설립 41주년 기념부흥성회
새크라멘토한인침례교회(담임 김중규 목사) 설립 41주년 기념부흥성회를 9일(금)부터 11일(주)까지 '승리하는 성도'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강사는 김영환 목사(공도침례교회 원로). ▲문의: (916)966-0191

세리토스장로교회 원로 홍보연준 목사 소천

세리토스장로교회(CPC) 원로 홍보연준 목사가 6월 1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했다. 1930년 평양에서 출생한 고인은 6.25 전쟁 때 부산으로 피난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신학교로 인도 하셔서 고려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충성을 다했다. 한국에서 20여 년간 목회를 한 고인은 1975년 도미 77년 세리토스장로교회를 개척했다. 고인은 또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교단 창립멤버로 교단장립을 이끌었으며 KAPC 총회장을 역임했다. 파라과이에 신학교, 교회 개척, 그리고 학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파과이 국민들을 섬기셨고, 2005년 CPC 은퇴 후에는 캄보디아에 거주하시면서 신학교를 통해 목회자들을 양성했다. 고인의 천국환송예배는 8일 오후 7시 CPC본당에서 가졌으며 하관예배는 9일 11시 로즈힐스 공원묘지에서 가졌다. (박준호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www.thankingwingschurch.org	남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lafgusa@yahoo.com	남성영락교회 담임목사: 김문수 www.youngnak.com	남성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문수 www.mpcia.org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www.nachimban.org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www.dundundun.com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www.lovingcare.org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www.dhkc.org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www.lightandsalt.org	베델인교회 담임목사: 김한효 www.bethelchc.org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덕 www.bvpc.org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www.wsc.org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www.gracemc.com	주님세움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www.junimchurch.com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www.ygc.org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www.gomv.org
미주중앙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www.mjc.org	미주연합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www.mjuc.org	미주침례교회 담임목사: 임수진 www.mpcia.org	미주침례교회 담임목사: 임수진 www.mpcia.org

교도소 선교칼럼 (23)



교도소 교목, TPPM대표
이영희 목사

용서의 은혜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형이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무척 어려운 시간입니다. 최종적으로 형을 언도 받게 되면 그 결정에 따라 하나님께 분노하며 원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형을 받고 안도감을 느끼며 감사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은 형을 지나치게 중하게 내리서 무죄징역이나 100년이 넘는 형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세계에서 재소자가 가장 많은 나라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생각했던 것보다 형을 적게 받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프레드릭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용서를 체험했다며 자신의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33살의 프레드릭은 마약과 술에 빠진 삶을 살며 오랫동안 교도소를 들락거렸습니다. 하루는 경찰이 그의 차를 멈추게 했는데 그는 술과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에게 붙잡히지 않으려고 뺑소니를 쳤습니다. 그렇게 도망을 가

던 중 교통사고를 내서 차 안에 있던 두 명이 중상을 당했습니다. 프레드릭은 별로 다친 데가 없이 교도소에 왔지만 자신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마음 아파하며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작게는 18년에서 많게는 144년까지의 형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만일 그 차사고로 사람이 죽었다면 그는 더 큰 형을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프레드릭은 그의 형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기를 기다리던 중, 재판 날이 가까워지자 불안과 초조에 휩싸여 마구의 공격까지 받으며 힘들어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나 오랜 기간의 형을 받아 장기가 수될 수도 있다는 것에 초조해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상황의 프레드릭을 상담하며 회개의 기도를 시작할 것과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도와주고 계시는지에 대해 신앙 간증을 쓸 것을 권했습니다. 프레드릭은 변화프로젝트 교도소 문

서선교의 책들을 읽으면서 또, 자신의 신앙 간증을 쓰면서 차츰 마음에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은총을 구하며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프레드릭이 평안을 되찾아감에 따라, 그는 그가 낸 차사고로 인해 중상을 당한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피해자로부터 예기치 못했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프레드릭,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 일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가족 간의 더욱 가까운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프레드릭은 그동안 가졌던 죄책감과 무거운 짐이 벗겨져 나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재판을 받던 날, 재판관이 묻는 18가지 죄목에 관해 그것이 모두 사실임을 시인하며 말했습니다.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의 대답을 들은 판사는 이제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다 시인하는 사람은 별로 본 적이 없었다고 하며 144년이 아닌 18년 형을 언도했습니다.

프레드릭은 사실 그보다 더 많은 형을 받으리라고 생각했는데 판사는 그가 잘못을 시인한 것을 가감하여 형을 적게 준 것입니다. 그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죄책감이나 불안 초조로 고통스러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신앙 간증을 썼습니다. 프레드릭은 앞으로 마약과 술 중독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프레드릭의 이야기를 듣고 격려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형을 더 오래 받은 사람들은 그의 간증을 읽고 삶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 프레드릭에게 다시 한번 세상밖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 면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장기간의 형을 받았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찾았기에 평안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에게 교도소에 있으면서도 계속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제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을 간증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 변화프로젝트 책에 출판이 되어서 용서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치유를 돕는가에 대해 알려줄 것입니다. 프레드릭은 이제 주정부 교도소로 이송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했기 때문에 얼굴에 더 이상 어두운 그늘이 없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잊혀진 사람들입니다. 교도소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문서선교가 계속적으로 성장하여 많은 책들이 교도소에 배포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통하여 갇힌 자들이 구원을 얻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기를 그리고 그들이 다시 복음의 일꾼이 되어 구원의 씨를 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프레드릭을 위해서 그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yonghui.mcdonald@gmail.com

건강 길라잡이



이영익 내과전문의

심근염

감기 후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의심

감기 바이러스는 대개 코 점막에서 시작해서 호흡기를 타고 내려가면서 각종 호흡기계 합병증을 유발한다. 바이러스에 따라서는 위장을 선택적으로 감염시키기도 하고, 심장을 공격해 증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S씨는 30대 초반으로 평소 감기하면 앓은 적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다. 하지만 일주일 전부터 열이 나고 전신이 추시고 아팠으며 목이 쉬고 기침이 났다. 그는 감기라고 생각하고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 먹었다. 또 감기에는 휴식이 제일이라는 통념에 따라 며칠간 집에서 쉬었다. 그런데 이를 전부터는 열도 떨어지고 전신이 아픈 증상은 좋아졌는데 숨이 조금씩 차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달걀 무서운 생각이 들어 병원을 찾았다. S씨는 지금까지 앓은 질병이 없고 담배나 술도 전혀 하지 않으며 일과 후나 주말에 조깅이나 테니스를 하면서 건강 관리를 해왔다.

S씨를診진하자 혈압과 혈중 산소농도는 정상이었다. 맥박이 조금 빨랐고 폐음은 정상이었지만 심장 청진상 제 3음이 저명하게 들리는 것이 특징이었다. 가슴 엑스선 사진은 정상이었으나 심전도상 T파가 비정상적인 것 외에는 정상 소견이었다. 일단 S씨가 심장 질환의 위험이 낮은 30대 초반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했왔으며, 최근 바이러스로 추정되는 감기를 심하게 앓았고 약간의 심전도 이상 이외에는 이학적 검사가 정상이었기에 바이러스성 심근염으로 잠정 진단했다. 증상 치료만 하고 2주 후에 다시 심전도 검사를 하기로 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 후 S씨는 상태가 좋아졌고 2주후 검사에서는 심전도가 정상으로 되돌아왔다.

바이러스성 심근염이란 글자 그대로 바이러스가 심장 근육에 침범해서 생기는 병이다. 흔한 바이러스로는 콕사키 바이러스 등이 있으며 C형 간염 바이러스도 심근염을 일으킬 수 있다. 감기몸살 증상이 생선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심하게 피곤한 증상을 느끼거나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느낄 수 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검사 상에는 정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단은 주로 잠정진단으로 추측해서 한다. 심근염을 심하게 앓는 경우 진단 목적으로 심장 근육의 조직 검사를 해야 한다.

치료는 다른 바이러스 질환처럼 바이러스 감염 초기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것이 중요하는데 대부분은 질환이 진행된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바이러스성 심근염은 바이러스성 기관지염이나 폐렴처럼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드물게 부정맥이나 심부전 등의 심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감기 후에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 등이 나타나면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davidinjeon@yahoo.com



뉴욕교협 2017년 원주민선교 선교훈련 개강예배에서 선교팀원들이 찬양하고 있다.

“가서 그들과 소통하고 복음 전한다” 뉴욕교협 2017년 원주민선교 선교훈련 시작

뉴욕교협이 2017년 원주민선교를 앞두고 지난 4일 저녁 6시 뉴욕선한목자장로교회에서 개강예배를 드리고 선교훈련을 시작했다.

선교분과위원장 이재봉 목사는 “지난 10년간 문화교류를 시작으로 점근해온 원주민 선교가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조금씩 문이 열리고 있다”며 “어느 지역은 문 닫았던 교회를 열고 함께 예배도 드렸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은 거부하는 지역도 있지만 우리 선교팀들

두 환영한다”고 말하고 “1.5세, 2세들이 함께 가서 그들에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소개하면서, 선교팀원 우리 자녀들이 신앙으로 성숙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동산교회(담임 이상삼 목사) 예배와 찬양팀(다니엘김)의 찬양에 이어 설교한 회장 김홍석 목사는 마태복음 28장 18-20절을 본문으로 주님의 선교 대명령에 대해 전하면서 “믿는 자로서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

다”고 강조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가서 그들과 소통하고 그 소통을 통해 복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앞서 찬양한 ‘시선’의 가사처럼 하나님 앞에 시선을 집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뤄진다”며 비바산교의 아버지 저드슨, 인도 선교사 알렉산더 더프 등을 소개하며 “예수님 제자를 만드려면 내가 먼저 제자가 되라”, “(원주민들로 하여금) 한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라” 등의 말씀을 전하며 “이번 원주민 선교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교 대명령을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훈련하고 기도하자”고 역설했다.

예배는 이재봉 목사 축도로 마치고 사무엘리 목사(뉴욕어린양교회 EM)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이번 원주민 선교는 예년과 같이 미네소타(4팀)와 위스콘신(3팀)으로 가게 되며 참가인원은 150여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는 시카고와 보스턴 지역 선교팀들과 합류하게 돼 참가인원은 180-200여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5면에서 계속〉

사람의 편리와 원하는 대로 한다면 예배는 회복될 수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하여야 예배가 회복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세상에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만 만들고 있다. 또한 축복을 받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예배와 교회 그리고 자신의 신앙이 회복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권력이 역사하지 않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또한 죄를 이기는 승리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영적인 의로움과 거룩함도 없을 것이며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에 동참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회복이 드러나야 한다. 성령의 기쁨 무엇보다도 예배의 형식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을 극복해야 한다. 그렇게 드러진 참된 예배는 사람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진리의 길을 따라감으로 마침내 승리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davidinjeon@yahoo.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p>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www.kumr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p>	<p>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항희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p>	<p>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Tel: 39-06-827-3585, 39-348-339-1726</p>	<p>새이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 (031)896-6077</p>	<p>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Tel: (82)2-2646-3191~3, (82)2-2646-3184</p>	<p>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www.seongsil.or.kr Tel: (02)2-950-9988, Fax: 3927-1008</p>	<p>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p>
<p>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p>	<p>승등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Tel: (02)732-2341~3, 팩스: (02)389-2235</p>	<p>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p>	<p>신길교회 담임목사: 이기용 Tel: (82)2-842-1968, 팩스: (011)82-2-842-1968</p>	<p>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결 Tel: (02)418-0481, Fax: (02)422-0751</p>	<p>신촌교회 담임목사: 박노훈 Tel: (82)2-3142-6080, Fax: (82)2-336-4188</p>	<p>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Tel: (82)2-926-4508, Fax: 2648-4662</p>
<p>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p>	<p>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Tel: (82)2-889-4813, 331-284-7204</p>	<p>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신일권 Tel: (02)842-6881, Fax: (02)842-6882</p>	<p>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Tel: (82)2-527-1009, 팩스: (043)275-8114</p>	<p>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p>	<p>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p>	<p>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준호 Tel: (82)2-793-7740, Fax: 2648-4662</p>



shalom의 교육학(22)
Shalom



이희갑 목사
(아주사범시립 대학교 교수)

다니엘 프로젝트를 시작합시다

자녀를 다니엘처럼 양육합시다

필자가 기독교 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고민한 이래로 늘 한결 같이 떠오르는 한 사람의 이미지가 있었다. 바로 다니엘이다. 필자가 다니엘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아마도 한결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것 같다. 정말 그랬다. 그는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이었다. 믿음이 변질되지 않은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처음 믿음을 버린 사람도 있었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다가 말년에 겨우 믿음을 찾은 사람도 있었다(므낫세 왕의 경우). 거짓말하는 것은 물론이고, 살인자도, 간음한 사람도 있었고, 주님을 세 번 부인한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온갖 향락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 했다가 나중에 돌아왔던 삼손과 같은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달랐다. 시종여일, 일편단심, 표리부동의 사람이었다. 그러고도 그는 당대 최고의 권력자 지위에 오른 사람이었다. 이민자가 다른 나라에 가서 그것도 여러 왕조를 통하여 중용 받았던 전대미문의 사람이었다.

무엇이 그를 다르게 했을까? 다니엘 6장에서 보면 그의 인간적 면모, 그의 뉘네미의 형태를 알 수 있게 한다. 먼저 그는 당대에 최고의 실력을 갖춘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 다니엘 6장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distinguished himself),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exceptional)고 기록하고 있다. 교수 중에서 최고의 지식과 학식을 갖춘 사람을 석좌교수(distinguished professor)라고 부른다. 바로 다니엘이 그렇다는 얘기다.

하긴 그는 바벨론에서 느브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준 이래로 그는 박사(지혜자)로 불렸을 뿐 아니라(단2:48), 그는 그러한 박사 그룹의 대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벨사살왕이 그를 '박사장 벨드사살(벨드사살은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이라고 불렀던 것(단

4:9)을 기억해보라. 그의 전문적 지식과 학식, 인품과 태도는 당시 어떤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났다는 의미이다.

통상 세상 학문에 뛰어난 사람일 경우 신앙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다니엘은 달랐다. 오히려 그는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신실했던 사람이었다. 다니엘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자 시기했던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의 뒷조사를 하

고 다니며 혹시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다니엘의 비리와 부정을 캐서 고소할 틈을 찾으려고 애를 썼다. 그의 장부를 조사하고 그가 돈을 사용하는 문제들을 일일이 살펴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니엘의 부정과 비리를 찾을 수 없었다. 그의 개인 생활, 경제적인 부분을 조사할수록 그의 정직성과 깨끗한 생활태도가 그대로 드러났던 것이다. 다니엘 6장4절 "아무 허물도 없었으니라" 다니엘은 모든 것에서 흠잡을 것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전략을 바꾸게 된다. 다니엘의 신앙을 타깃으로 잡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고(단6:7에 보면 총리인 다니엘 없이 그들끼리만 논의한 것을 보라), 이를 왕에게 보고한다. 즉 향후 30일간 어느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물론 다니엘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사자굴에 처해 진다는 법령이 선포된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다니엘 6장10절을 보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

아가서는 뒷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세 부분에 주목하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였더라' 바로 다니엘의 신앙자세이다. 그는 이 사실을 알았다. 곧 자기를 향하는 계획임을 알았다. 그럼에도 그는 변함이 없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리고 그는 집에 까지 따라온 정탐꾼들

에게 보란 듯이 창문을 열고 공개적으로 기도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상황에 부딪치면 빠져나오려는 함리와 핑계를 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달랐다. 환경이 내게 불리하더라도 아무런 어려운 조건이 나에게 임한다 해도 그는 원칙을 바꾸지 않았다. 이런 환경 속에서 그는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러나 성경은 증거한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다니엘은 자신을 예외한 불리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켜낸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그는 그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이며 그의 믿음을 통해 불신자였던 최고 통치자인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던 사람이다. 다니엘 왕이 하나님을 높인 다니엘 6장26절을 읽어보라. "그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다니엘 프로젝트를 시작합시다
필자는 우리 자녀들이 바로 다니엘과 같이 지식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한다. 그는 전문적으로 뛰어났을 뿐 아니라 (단 4:3), 개인적 성품면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 사람이었다 (단 6:4). 그뿐인가? 그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믿음에 뛰어난 사람이기도 했다 (단 6:5).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브갓네살왕과 페르시아의 다리오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독교인으로 전도하였던 사람이기도 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 차세대 아이들이 모두 다니엘처럼 지식적으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되어 그들의 때가 오면 마음껏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를 위하여 필자는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다니엘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싶다. 다니엘과 같은 자녀를 키우기 위해 교회에서 교사들, 가정에서 부모들은 어떠한 생각과 신념을 가지고 그들의 자녀/학생을 양육해야 할 것인가? 필자는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확고한 아이덴티티를 갖는 아이로 키워라! 무슨 말인가?

않지만 아마도 경건한 왕족 혹은 귀족이었음을 알 수 있다(단1:3). 그들은 다니엘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준 것으로 보아 하나님께 헌신된 부모였음에 틀림없으며 어릴 때부터 다니엘을 철저하게 영적 교육을 시켰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마치 모세의 어머니가 애굽의 왕궁에 데려다 주기 전 그의 정체감에 대해 교육을 시켰듯이 다니엘의 부모님도 어렸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감을 철저하게 심어 주었으리라. 아마도 이렇게 교육시키지 않았을까? "다니엘아! 하나님은 너의 심판자가 되시는 분이란다! 늘 너를 인도하고 너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 명심 하거라! 오직 하나님만이 너를 심판하시는 분이란다. 세상 어느 것도 하나님을 절대 앞설 수 없는 거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란다."

다니엘은 이러한 믿음의 정체감은 그의 삶의 원칙이 되었고 흔들리지 않는 좌표가 되었다. 모든 환란과 시험 속에서 우뚝 서게 만드는 무기가 되었던 것이다. 자녀에게 올바른 영적 정체감을 확립하

요한 유산이 무엇인가? 바로 신앙이다. 기독교 교육이 오늘날 힘없어진 이유가 바로 신앙교육에 우선권을 두지 않고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순종하려 했었던 것에 기인한다. 다니엘은 세상의 가치를 가다듬어 세상을 이기려 하지 않았다. 그는 알박한 습관과 꾀로 다른 사람을 앞서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던 사람이었다.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우리 부모는 자녀와 얼마나 믿음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가? 함께 성경공부를 하고 있는가? 같이 기도하고 있는가? 자녀가 어릴 때 10년을 믿음으로 무장시키면 이후 하나님은 자녀를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무장시키신다. 처음에는 작게, 그리고 점점 더 크게 하나님은 다니엘을 그렇게 사용하셨다.

셋째, 하루 세 번씩 기도하라. 다니엘의 하루 세 번 기도는 그가 평생 해왔던 습관적인 하나님과의 대화시간이었음을 기억하자. 전에 하던 대로(단6:10)라는 말은 그가 평소에도 그렇게 계속 하고 있었음을 말한다. 다니엘 6장은 그가 대략 82세 때 일어난 일이다. 다니엘이 뛰어난 지식, 탁월한 두뇌가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 꿈을 해석하고, 손가락으로 쓴 글씨를 읽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담대한 신앙을 견지하였던 것은 바로 그가 하루 세 번씩 기도했던 데에서 기인한다. 부모님들, 그리고 교사들에게 제안한다.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라.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각각 20분씩 기도하라. 그리고 자녀들도 이러한 운동에 동참하게 하라. 자녀들이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날 뿐 아니라 지적, 영적, 사회적 면에서 탁월한 사람이 되어서 같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미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비전의 씨를 뿌린 사람이었음을 기억하자. 그리고 우리 역시 다니엘처럼 미래 세대를 연결시키는 믿음의 연결고리가 되도록 하자. 다니엘은 꿈을 꾸었고 비전과 환상을 통해 다가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선견을 가졌다. 그는 그가 본 환상을 기록하였고 그 기록을 본 후세들은 바로 메시지를 고대하고 만난 기적을 체험했던 것이다.

우리는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야기를 기억한다. 동방은 요즘의 이란, 시리아 지역을 말하는데, 그들은 어떻게 그 먼 길에서 오게 되었을까?

(15면으로 계속)

어려운 환경에서도 원칙을 바꾸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
자녀에게 ① 확고한 영적 정체감 갖기 ② 신앙유산 물려주기
③ 하루 세 번 기도습관 갖기 믿음의 본 보이기

게 교육시켜라. 그래서 그들의 삶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확고한 자기 정체감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 우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 간 때가 기원전 606년이었으므로 대략 그의 나이가 15세 쯤 되었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판단한다. 그가 포로로 바벨론 궁중에 지내게 되면서 바벨론 교육을 받았고 바벨론 문화를 익혔지만 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 당시 바벨론 우상에게 먼저 바친 고기는 이후 바벨론 왕의 식탁에 놓이지 않게 되었는데 바로 이 점 때문에 다니엘은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하게 된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바로 그의 정체감이다.

다니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의미이다. 비록 바벨론이 당시 가장 강력한 국가이기는 했어도 그는 주눅 들지 않았다. 왜 그런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운명하심을 그는 믿었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운행자이며 심판자임을 그는 일찍이 알았다. 성경에는 다니엘의 부모에 대해서 기록이 나오지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2017 상반기 세미나 일정

날짜	지역	장소	이름	전화번호
2/6-7	LA	오렌지카운티	김영대 목사	714-392-9576
2/9-10	LA	오렌지카운티	윤건상 목사	949-705-7879
4/20-21	충북	평화교회	신형수 목사	010-4004-7004
4/24-25	강원도	영월교회	남상욱 목사	010-3422-5556
4/27-28	전남	전남지역	유동희 목사	010-9770-0110
5/1-2	창원	큰빛교회	강석규 목사	010-8706-9183
5/9-10	부산	부영교회	정성영 목사	010-3001-9257
5/11-12	부산	주님의교회	김중문 목사	010-3074-7974
5/15-16	충북	충주교회	윤민식 목사	043-272-2721
5-18	서울	등대교회	박래면 목사	010-9090-8291
5/22-23	대구	햇물선교교회	장명석 목사	010-8372-5063
5/25-26	대구	새생명교회	김하림 목사	010-8938-8512
5/30-31	양산	영광교회	김종명 목사	010-3022-0690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 (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다섯째, 사모의 역할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다양한 사역의 요구)도 만만치 않다.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는 남편에 비해 사모들은 '가정사역'과 '그늘사역'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 갈등과 정서적 상처를 입기가 쉽다.

보통 다른 아내들의 역할은 한 가정에서 한 남편의 아내로서 또 한 자녀들을 양육하는 어머니로서의 역할만 잘하면 된다. 그러나 목회자의 사모는 여자의 기본적인 역할 이외에 교회라는 대 가족의 영적 어머니 역할을 해야 하고 목사의 비서로, 상담자로, 교사, 접대자로, 운전기사, 반주자로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사모는 교회의 특별한 기대의 대상이다. 시도 때도 없이 많은 전화를 받아야 한다.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가족만의 오붓한 시간도 가질 수 없을 때가 많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낄 때 피로와 함께 오는 스트레스가 심각하다.

평신도도 아니고 사역자도 아닌 애매한 자리에 위치한 사모들, 그러나 구석구석

이나 억울하고 분한 일 등을 어디에 털어 놓고 이야기 할 친한 친구도 없고 또 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남편 목사의 목회에 나쁜 영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원로 목사님께 도움이 된 말씀 좀 해 달라고 부탁했더니 "교인들을 많이 사랑은 하되 절대로 믿지는 말라"고 하시면서 경고한 적이 있었다.

사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말이 있듯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 것은 많은 경우에도 평소 가까이 지내던 가정들 통해서이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항상 거리를 두고 성도를 사귀어야 한다. 따라서 사모는 인간적으로 외로움을 느낀다.

사실 사모는 어느 특정한 가정이나 개인과 가까이 지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목사의 가정과 가까이 지내며 사랑 받는 관계를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도들 간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자녀들을 데리고 휴가를 갈 때도 성도들은 친구의 가족들과 함께 어울려 가지

때문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민 목회에서 중요한 것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나라에 이민 와서 어려운 환경 중에 생기는 고독이라는 감정이 우울증으로 발전해서 고민하는 성도들과 이웃 교포들을 치유하고 목회자로서 도움을 주고 믿음으로 잘 인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민은 교포들 중에는 별을 보고 나갔다가 별을 보고 집에 들어오는, 힘들고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외로운 성도들을 돌보며 성도들이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성도들의 웃음을 지며주기 위해 사모 자신은 아프고 힘들어 스트레스를 받아도 혼자 끄고대며 삭히느라고 심신이 지친다. 그러다 보니 사모 자신들이 우울증에 걸려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

남편과 함께 목회 현장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달려왔던 사모님들, 남편의 눈치 보라, 교회의 눈치 보라 마음 놓고 웃어본 기억조차 못한 대다수의 사모님들. '십과 회복'의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지만 현

최고의 에제르가 된다 (21)



이희숙 사모

목회자의 사생활을 속속들이 드러내는 것이 솔직한 인간관계형성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거룩한 목양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데는 금물이다. 목회자는 교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이지만 그들과 유별해야 한다. 목회자가 영적 존재의 신비감을 잃으면 감화력도 잃기 쉽다.

만 목사 가정은 교회 단체로 가는 모임이면 몰라도 한 두 가정과 함께 가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리고 사모가 예배에 참석할 때 어느 일정한 성도의 옆에만 항상 같이 앉아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와 같이 사모는 교인들과의 격리된 삶을 때로는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참 외롭다.

목회자의 사생활을 속속들이 드러내는 것이 솔직한 인간관계형성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거룩한 목양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데는 금물이다. 목회자는 교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이지만 그들과 유별해야 한다. 목회자가 영적 존재의 신비감을 잃으면 감화력도 잃기 쉽다. 성도들은 목회자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감동과 감화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4)교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와 성도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교회마다 문제없는 교회가 없다. 교회의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때 항상 최종적인 책임은 담임목사에게 있다. 그러므로 교회의 문제를 놓고 사모는 남편 목사와 함께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한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는 속담과 같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기 식구들의 문제만 돌보면 되지만 교역자는 많은 교회 식구들을 돌보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 성도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들의 문제를 목회자 자신의 문제처럼 금식하며 기도하며 해결해주어야 하는 위치에 있다. 그러므로 사모도 다른 사람들이 문제의 짐을 싫든 좋든 져야 하기

실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다.

2.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와 결과

1)목사님의 목회와 교회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

어떤 사모는 당하나 제직회를 하는 날이면 아침부터 머리가 아프고 밥맛이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당회를 하는 날이면 목사님이 밤늦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기다리는 동안 걱정과 불안한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호소한다. 그 결과 목사님의 마음도 불안해지고 신경도 예민해져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목상하며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모는 목사님의 목회와 교회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2)사모자신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온다.

사모들의 스트레스는 정신적인 불안정이 육체적인 질병을 가져온다. 올바른 대인 관계를 갖지 못하게 된다. 우울증, 대인 기피증, 자폐 등에 시달리게 됨으로 정상적인 대인관계를 갖기 힘들어진다.

3)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자녀들이 부모의 목회 사역에 긍지를 갖지 못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끼쳐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hlee39@sbcglobal.net

살롬의 교육학

(14면에서 계속)

동방박사들은 바벨론, 페르시아 후예들로 다니엘이 85세 때 환상을 보고(단 9:25-26) 다가올 메시아를 생생하게 기록하게 되고 동방박사들은 그런 다니엘의 예언을 믿고 있었고 민수가 24장17절에서 발람이 한 예언, 즉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동방박사들은 점성술을 연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다니엘이 죽은 뒤 18대 이후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별을 보고 알았고 하나님은 이방인들이었던 동방의 박사들의 고백을 통해 메시아 탄생을 세상에 알렸고 그들은 아기 예수께 온 맘을 다해 경배함으로 예수님이 왕이심을 증명하였던 것이다.

이방 땅에서 쓸쓸히 죽어간 다니엘은 그러나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믿음의 연결자로서 귀한 역할을 수행했던 다니

엘! 참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아니었던가? 우리는 어떤가? 우리 자녀들을 다니엘로 양육하려는 의지에 앞서 우리 역시 다니엘이 보여준 믿음의 행적대로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신실하고 변함없는 다니엘의 삶의 자세,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던 그의 철저한 신앙관, 그리고 그가 받았던 환상과 비전을 그의 후손에 전해주었던 철저한 교육자적 사명, 바로 그것을 우리 역시 실천하고 삶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선 조로부터 받은 믿음을 우리 후손세대에 잘 전해주는 것이다. 마라톤 경주에서 바톤을 우리 앞에서 뛰었던 사람으로부터 받아서 다음 사람에게 전해 주듯이 바로 우리가 다니엘처럼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와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이다"(시78:4).

글을 마치며

교육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필자는 생각했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러한 교육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왕성하게 실천되는 것을 소망한다. 그동안 필자의 부족한 부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귀한 기회를 주신 미주크리스천신문사에 큰 감사를 표한다. 그리고 격려해주신 독자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주고 싶다. 우리의 2세들, 자녀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계속되기를 기도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함께 가기를 소망한다(눅13:33).

(끝)

hlee0414@gmail.com

매일가정예배

허운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삼하14:30-33)

성도는 끝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암살품이 피난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아무도 아는 척을 하지 않으니까 암살품이 서서히 화를 내면서 순수하지는 않았지만 생명의 은인인 요압의 발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차라리 옛날 외할아버지 집에 피난해 있을 때가 더 좋았다며 잘못이 없었니까 왕궁

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암살품의 이 행실을 보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이렇게 뻔뻔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잘해주면 좋아지지 않겠지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결국 배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사랑을 베풀되 말씀에 따라 가르쳐야 하며 잘못된 것은 권면하고 충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화 암살품이 자기를 위하여(삼하15:1)

성경에 나쁜 사람을 이렇게 오랫동안 기록한 곳이 없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암살품입니다. 오늘 우리가 암살품을 통해서 받은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는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은혜를 갚으며 살아도 모자를 암살품은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반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형 암논을 죽이고 5년 동안 피난해 있으면서 회

개하고 돌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나쁜 일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버지 다윗왕에게 감사해서 평생을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하여" 군사를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이 넘치는지요?

수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삼하15:2-4)

성도는 항상 자기 위치를 지키 줄 알아야 합니다. 암살품은 자기 분수를 벗어나 버렸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우습게보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잘 지키고 영원히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자기 위치를 잘 지켜야 합니다. 천사가 하나님을 수종드는 위치를 지키지 못하면 하늘에서

추방돼 영원히 무저갱에 갇히게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종으로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도록 목양하고 가르치는 책임이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 잘 순종하면 영원히 자손만대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목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삼하15:5-6)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 암살품은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 다윗왕의 자리를 넘보기 위해 첫 번째 한 행동이 백성들에게 다윗왕을 이간질 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암살품이 성도들의 마음을 도적질합니다. 그래서 결국 망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의 자리가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만족하고 오늘도 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중하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성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관계를 이간질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할 때 결국은 망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늘 신실해야 합니다.

금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삼하15:7-12)

암살품은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왕자로 태어나 아버지 다윗왕의 큰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행한 길로 가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암살품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성도는 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암살품에게 청함을 받은 2백명은 그저 평범한 평민이 아니라 나라의 지도자들이였음에도 "사기(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를 알지

못하고..." 암살품이 가져다 하니가 그냥 따라간 것입니다. 왕궁에서 다윗왕을 도와주었던 모사 아히도넬이 갑자기 배신을 했습니다. 성도는 늘 기도하며 과연 이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지,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의 리더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토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암살품에게로 돌아갔나이다(삼하15:13)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라의 지도자들이 거의 다 암살품에게 넘어갔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다, 존경한다, 훌륭하다, 대단하다" 할 때에 그것을 대단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늘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쁘다, 문제 있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

에 진실하기만 한다면 그것 때문에 별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결산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암살품을 따라갈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다들 따라갔습니다. 성도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달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분만 의지하며 신앙 안에서 서로 신실하게 만나야 합니다.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_____ 목 사 <input type="checkbox"/> 영 어 : _____ 평 신 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 20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Blessed Assurance, JESUS is Mine"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Welcome to

FLORIDA



Nyskc Family Conference 2017

Southeastern University



JUNE 26 - 29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가 있는 곳으로"
"예배가 회복되면 교회가 살고 나라와 가정이 산다"



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최고센 목사



Nyskc World H.Q.

총재 :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 최고센 목사
실무회장 : 이병완 목사

Nyskc World Mission

nyskc.org/nyskcconference.org/nwm@gmail.com

"2018 Nyskc conference는 Washington DC에서"



Nyskc Learned Society
회복의 신학 학회

학회장 : 윤사무엘 목사(GTS 학장)
학회실장 : 최기성 목사(뉴욕)

Nyskc Family Conference '17 FL 조직위원회

자문: 장진광 목사 (파스코한인장로교회)
이병준 목사 (순복음렘파교회)
대회장: 곽춘식 목사 (렘파제일감리교회)
준비위원장: 이병역 목사 (두란노교회)

행사 안내 및 등록문의 U.S.A.

대상 : Family & 목회자 부부
등록마감일 : June 5, 2017
참가비 : (교통비 별도)
일반인 \$300, 목회자 1인 \$150
T. 845.355.8829, 703.509.1990
646.269.0045, 917.698.9965

후원 : 서부플로리다한인교회협의회 / 플로리다코리아신문사 / 크리스찬헤럴드 / 크리스찬위클리 / 기독교일보
SKBTV.org (구원위 소리방송) / Foodtown of Goshen (Goshen Kimchi) / Greenville of Goshen LLC